

2014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

# 남북한 주민 접촉면 확대를 위한 사회문화 교류 추진 방안

---

2014. 9.

연구책임자   유시은(고려대학교)  
공동연구자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김윤영(한양대학교)  
                  이숙현(유니퀘어)  
연구보조     정진희(유니퀘어)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 차 례

I. 연구필요성 및 배경 .....	1
II. 이론적 배경 .....	3
1. 남북한 주민의 이질화 실태 .....	3
2. 남북한 주민 접촉면 확대의 중요성 .....	14
3.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특징과 의미 .....	17
4. 남북 사회문화 교류 접근 관점 .....	22
III. 해외 사례 분석 .....	25
1. 동서독 사례 .....	25
2. 북아일랜드 사례 .....	46
3. 정책적 시사점 .....	50
IV.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현황 및 문제점 .....	54
1.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현황 및 특징 .....	54
2. 기존 남북 사회문화 교류 문제점 .....	59
V. 남북 사회문화 교류 추진 전략 .....	62
1. 사회문화 교류의 비전 : 통일 한국의 사회문화 공동체 .....	62
2. 사회문화 교류의 목표 .....	63
3. 사회문화 교류 추진 원칙 .....	64
4. 사회문화 교류 영역 .....	66
5. 사회문화 교류 추진 전략 .....	67
6. 사회문화 교류 추진 과제 .....	71
VI.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프로그램 .....	75
1. 남북한 공동 하천, 삼림 관리 .....	78
2. 남북 이산가족 2·3세 동반 행사 .....	80
3.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행사 .....	82
4. 남북 문화유산 공동 발굴 .....	84
5. 금강산, 개성, 백두산 관광 .....	86
6. 모자보건 및 여성 교류 .....	88
7. 동북아페스티벌-동아시아해 크루즈 .....	89
8. 한반도 공동 수호단 .....	90
9. 남북한 공동 국제대회 참여 .....	92
10. 통일문화주간 .....	94
참 고 문 헌 .....	96

## <표 차 례>

<표 1> 정치교류, 경제교류, 사회문화 교류의 차이 .....	21
<표 2> 서독의 통일정책 및 교류정책 .....	28
<표 3> 동독의 통일정책 및 교류정책 .....	29
<표 4> 시기별 동서독 문화 분야 교류 .....	31
<표 5> 동서독간 서적 교류량 .....	33
<표 6> 시기별 동서독 스포츠 교류 .....	34
<표 7> 동서독 체육교류 현황 .....	35
<표 8> 시기별 동서독 학술 교류 .....	37
<표 9> 시기별 동서독 청소년 교류 .....	39
<표 10> 연도별 동서독 청소년 단체관광자 수 .....	40
<표 11> 시기별 동서독 종교단체 교류 .....	42
<표 12> 부분 단체별 교류와 공동행사 .....	55
<표 13> 남북문화교류 현황 .....	56
<표 14> 남한과 북한 비교 .....	68
<표 15> 단계별 교류협력 방안(예시) .....	70

## <그림 차례>

<그림 1> 남북 문화의 이질화 .....	15
<그림 2> 남북교류 영역 .....	18
<그림 3> 사회문화 영역 .....	18
<그림 4> 남북교류의 영역 .....	19
<그림 5> 남북교류의 분야별 특징 .....	20
<그림 6>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특징 .....	20
<그림 7>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지향점 .....	22
<그림 8> 상호문화주의적 관점 .....	23
<그림 9> 사회문화 교류의 방향 .....	24
<그림 10> 남북교류의 단체와 지향점 .....	51
<그림 11> 동서독 교류의 과정 .....	51
<그림 12> 사회문화 교류의 비전 .....	62
<그림 13> 사회문화 교류의 목표 .....	63
<그림 14> 사회문화 교류의 원칙 .....	64
<그림 15> 남북교류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	67
<그림 16> 사회문화 교류 추진 과제 .....	71
<그림 17> 사회문화 교류 거버넌스 체제 .....	71



## <요 약>

### I. 연구 필요성 및 배경

- 남북한 주민의 사회문화 교류는 정치적·제도적 통일을 시작하는 지점인 동시에 70년여 년 동안 축적된 분단체제로 깊어진 심리적·문화적·삶의 이질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하며 친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함.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한간 접촉·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신뢰감을 다지는 데 대단히 중요함.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남북한 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사회 갈등과 충돌을 완화하고 민주적 소통문화를 만들어 감. 이러한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한 주민의 생활문화, 심리 및 의식세계에 관한 선(先)경험과 이해를 증진시킴.
- 남북한 주민의 접촉면을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층위로 확장하여 문화의 심층적인 공유성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작업은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확장에 기여할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주민 접촉면 확대를 위하여 생활 및 심리적인 차이를 분석하여 사회문화적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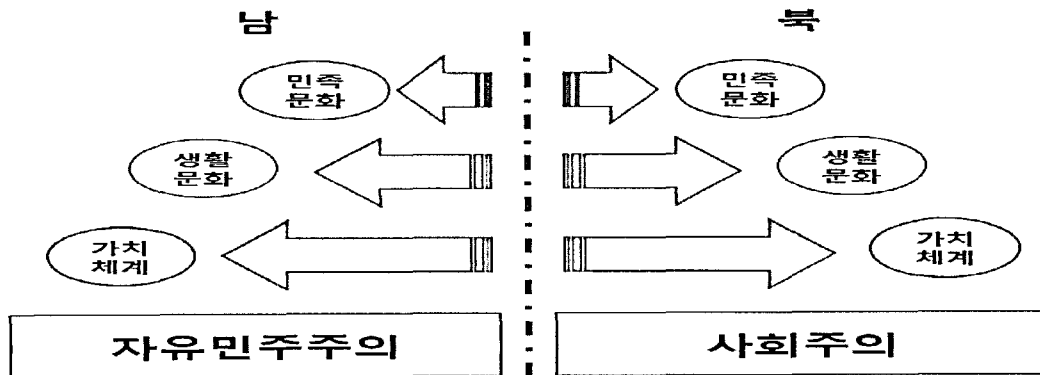
### II. 이론적 배경

#### 1. 남북한 주민의 이질화 실태

- 교육, 가정, 직장, 여가생활의 차이
- 언어 및 인지 가치관 등의 차이

## 2. 남북한 주민 접촉면 확대의 중요성

- 분단이 장기화 되면서 남북간의 동질성은 약해지고, 이질성이 강화되고 있음.
  - 공통의 언어, 역사, 문화 등 민족적 동질성이 약화되고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하여 가고 있음.
- 체제와 격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질성은 이제 남북한 주민의 생활 문화에까지 영향미침.



[그림1] 남북 문화의 이질화

## 3.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특징과 의미

-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간의 인적, 물질 교류를 말함.
- 남북간의 교류는 정치교류에서 출발하여 경제교류로 확장될 수 있고, 넓게는 교육, 학술, 문화, 체육, 보건, 종교 등 사회문화 교류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사회문화 교류는 문화, 예술, 과학기술, 도시, 학술, 교육, 스포츠 등 사회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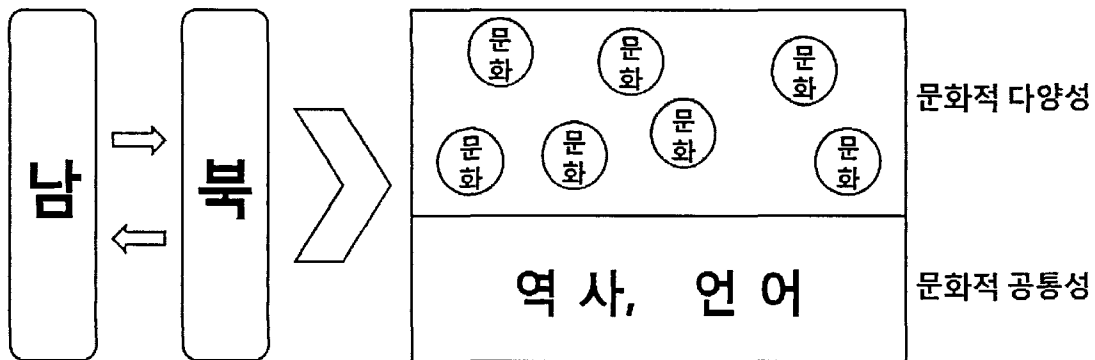


	정치교류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지향점	통일(unification)	통일(unification)	통합(integration)
목적	제도화, 통일성	효율성, 통일성, 국민복리	다양성의 공존 이질감 해소 상호 이해 및 포용
주 영역	정치, 경제, 군사	경제, 과학기술, 환경, 도로, 우편 등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
주 관심사	제도의 통일	제도의 통일	사람의 통합(공동체 형성)
교류의 규모	소수의 만남	다수의 만남	다수의 만남
교류 추진 주체	정부	정부, 기업	민간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교, 해외교포 등)

<표1> 정치교류, 경제교류, 사회문화 교류의 차이

#### 4. 남북 사회문화 교류 접근 관점

- 상호 문화주의 : 문화와 문화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 및 교류와 만남을 중시하는 관점임.
-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접근임.
-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



[그림 9] 사회문화 교류의 방향

### III. 해외 사례 분석

#### 1. 동서독 사례

- 서독의 통일정책 및 동독정책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음.(Glaab, 1996).

	관계단절기 (1949-1963)	관계정상화 모색기 (1963-1969)	교류협력기 (1969-1982)	교류협력 활성화기 (1982-1989)
정부형태	기독교민주당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통일정책	적대정책(냉전)	변화 정책	동독 접근정책	교류협력 정책
교류정책	관계단절	관계정상화 모색	교류협력 기반 구축	교류협력 활성화

<표2> 서독의 통일정책 및 교류정책

- 구동독의 통일정책 및 서독정책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음.(Kuppe, 1996)

	관계단절기 (1945-1955)	통일선전기 (1955-1961)	분단인정 및 상호승인 (1961-1971)	조약정책기 (1971-1989)
정부형태	독일공산당	독일공산당	독일공산당	독일공산당
통일정책	통일정책	통일선전정책	상호 승인정책	조약정책
교류정책	사회단체간 교류	사회단체간 교류	폐쇄정책	소극적 교류정책

<표3> 동독의 통일정책 및 교류정책

- 동서독 사회문화 교류 추진 현황
  - 1945년 분단 이후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 시기 까지 동서독간의 문화교류는 제한적으로 추진되었음.
  -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와 더불어 동서독간의 문화교류는 거의 단절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 1963년 빌리 브란트가 서베를린 시장에 취임한 이후 “작은 걸음 정책”이 추진되면서 동서독 문화교류는 다시 재개됨.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동서독간의 문화교류는 활기를 띠게 되었음.
- 1986년 문화협정(Kulturabkommen)이 체결된 이후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짐.

		제한적 교류협력기 (1945-1963)	교류협력 추진기 (1963-1972)	교류협력 제도화기 (1972-1981)	교류협력 활성화기 (1981-1989)
교류 정책	서독	소극적	적극적	적극적	적극적
	동독	소극적	소극적	소극적	소극적
주요 프로그램		연극단 오케스트라	예술단	미술 전시회 출판 오케스트라 영화	조형미술 박물관(유적 보존) 예술대학 교류 문학 및 도서관 음악 및 초청연주 연극 및 영화
법/제도				동서독기본협정	문화협정 공동협력 사업계획
교류 주체	서독	민간주도	민간주도/ 정부지원	민간주도/ 정부지원	민간주도/정부지원
	동독	정부	정부	정부	정부

<표4> 시기별 동서독 문화 분야 교류

## 2. 북아일랜드 사례

○ 북아일랜드의 분쟁 해결과정에서 NGOs가 중요한 역할을 맡음.

- 174 Trust
- Co-operation Ireland
- Corrymeela
- Habitat for Humanity Northern Ireland
- Northern Ireland Children's Enterprise (NICE)
- Sesame Tree Northern Ireland
- PeacePlayers International
- Springboard

### 3. 정책적 시사점

#### ○ 사회문화 교류의 지향점이 중요

- 동서독의 경우, 이질감 해소 및 상호이해 증진이란 목표 하에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통일을 예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약하였고, 더불어 통일 사회에 대한 지향점이 없었기 때문에 교류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 ○ 서독의 작은 걸음 정책에 주목

- 서독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주민간의 만남을 통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인내와 끈기를 갖고 동독과 접촉을 하고 교류를 성사시켰음.

#### ○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지원하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 서독은 교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와 더불어 각종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교류를 효과적으로 지원함.

#### ○ 민관협력의 중요성

- 동서독 사회문화 교류에 있어서 민과 관이 협력하며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북한의 소극적 입장을 고려

- 북한은 사회문화 교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 호응하는 분야 또는 방법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 ○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

- 단순 만남과 교류 프로그램과 더불어 일정 시간(며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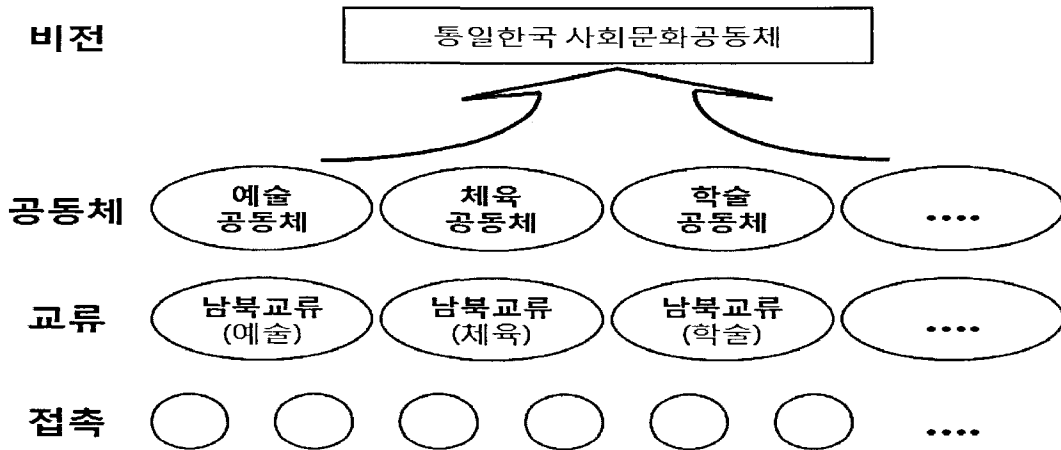
#### IV.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현황 및 문제점

- 정상회담 전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한계점으로는 1)사회문화교류가 탈 이념적이고 비정치적이지만, 여전히 실행 및 성과에 있어서,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쟁점을 벗어나기 힘들. 2) 자본주의, 제국주의 사상 및 문화유입으로 인한 체제붕괴를 우려하여 북한은 교류에 있어서 소극적 태도를 보임. 3)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화에 따라 상호갈등을 나타내는 경향이 큼.
- 남북정상회담 후 교류는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나, 남북문화교육의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교류사업 추진과정 및 협의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대북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지향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되어야 함. 또한 인적교류,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제한성이 있으며, 문화교류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남북한의 기본적인 정치적 상황에 존속되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행과정에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문제점은, 1) 교류행사는 단편적, 일회적, 개별적, 행사를 위한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짐. 2)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저변확대나 다양화가 부족함. 3) 교류 시 남북한의 동등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함. 남한의 사회문화가 북한에 소개되는 방향으로 전개됨. 또한 언론보도에서는 남한의 우월성이 과시되고 북한의 문화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음. 4)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시행주체는 국제기구, 남북한 정부 뿐 아니라 민간단체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함. 또한 담당 정책부처로 통일부가 중심을 이루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V. 남북 사회문화 교류 추진 전략

### 1. 사회문화 교류의 비전 : 통일한국 사회문화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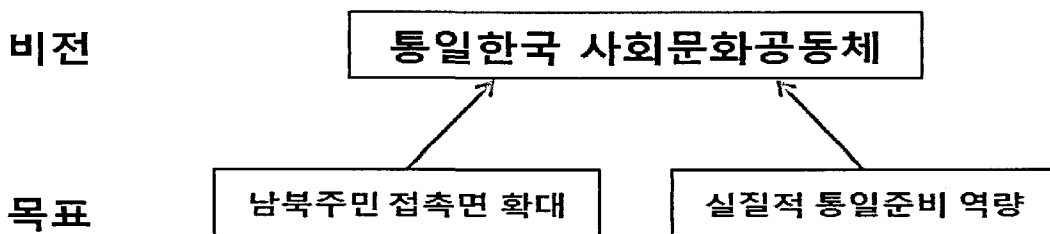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를 공동으로 재창조 하는 것을 지향함.



[그림12] 사회문화 교류의 비전

### 2. 사회문화 교류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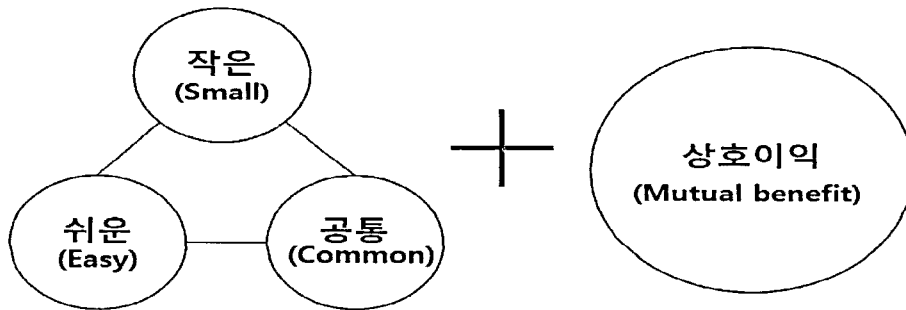
-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이라는 장기적 통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사회문화 교류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음.
  - 첫째는, 남북한 주민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것임.
  - 둘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한 주민의 실질적 통일 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그림13] 사회문화 교류의 목표

### 3. 사회문화 교류 추진 원칙

-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과 더불어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그리고 독일 등 외국사례 분석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위하여 크게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14] 사회문화 교류의 원칙

### 4. 사회문화 교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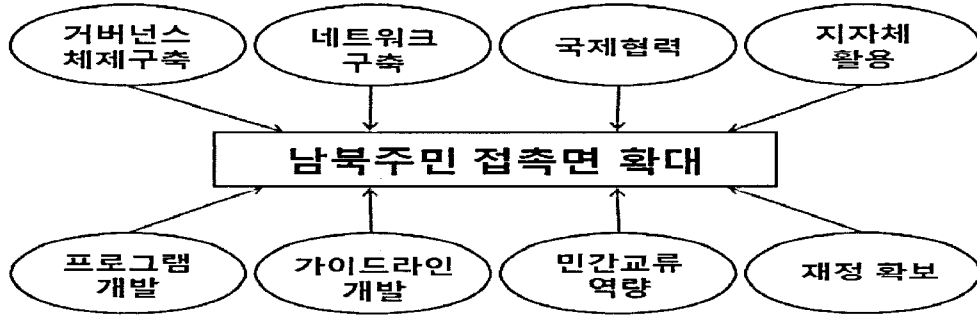
- 사회문화 분야는 주민의 삶 전체가 관련된 것으로 교류 범위가 매우 다양함.
- 독일의 경우에도,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교육, 보건, 출판, 보도, 지자체, 대학, 종교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음.

### 5. 사회문화 교류 추진 전략

- 아래로 부터의 접근
- 남북의 비대칭성 고려
- 교류 주체의 다양화
- 국제사회의 협조 및 역할 강조
- 단계별 추진

## 6. 사회문화 교류 추진 과제

-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여야 과제를 8가지로 제시하고자 함.



[그림16] 사회문화 교류 추진 과제

-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버넌스 체제는 크게 남한 내에서 구축하는 기구와 남북 간의 협의기구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통일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 필요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 VI.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프로그램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구체적인 방안을 교육 및 학술, 문화예술, 보건, 스포츠 등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분야가 통합방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음. 그리고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짐. 다음 방안에서 문화와 예술, 교육과 보건의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통일부는 다음과 같은 태도와 역할,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임.



- 가.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에서 비록 북한보다 남한이 물질적 비용을 담당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사회교류를 임하도록 함. 북한은 실리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의 유무를 따져 사회문화 교류의 참여여부를 판단할 것임. 남한이 경제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통일을 위한 투자라 여기고 북한이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나.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가 국제정세, 정치이념대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함. 북한과의 교류사업을 중단 없이 끌어갈 수 있는 북한 협상가와 사회문화 교류의 전문 인력풀을 마련해 놓고, 적극적인 협상에 임함.
- 다. 한류의 영향이 북한에도 미치고 있음을 탈북자를 통해 확인한바 있음. 북한의 문화유입이 한국사회의 변화, 정치이념적인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에 맞지 않음. 북한이 오히려 한류영향으로 정치이념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진지하게 우려할 것이라 보는데, 남한은 넓은 포용의 자세로 북한의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유입 및 접촉기회를 허용하여 교류를 활성화 함.
- 라.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민간과의 협력에 임해야 함. 현 시점에서 통일부는 유일하게 북한과의 대화창구 기능을 하는 기관이긴 하나, 사회문화 교류 사업에는 다른 기관의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함. 그러므로 통일부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되,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 각각 영역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계부처나 민간단체를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신뢰 있게 협력해야 함.
- 마. 특히 통일부는 교류사업의 중추역할을 하지만, 주최, 주관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각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특히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북한과 남한, 그리고 중국 등 제3국 지자체 기관의 협력을 통해 실행될 가능성도 있음. 지자체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통일부는 지속적으로 교류 사업을 모니터링하거나 컨설팅 하여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허브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

바. 또한 통일부는 원활한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수 있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가 유동적이고 이에 교류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남북 간의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협력이 필요함.

사.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대상은 폭넓을 수 있지만, 미래 통일주역으로 전쟁세대가 아닌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사업은 통일과업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함. 따라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사업은 청소년교류에 중점을 두고 실행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가정 내의 어머니로서, 남북한 여성에 초점을 두고 교류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있음.

아. 남북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함. 이 센터는 사회문화 교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할 수 있는 허브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 혹은 현재 연천에 있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가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또한 평화공원의 조성을 통해 그 장소를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활용 가능함.

○ 구체적으로 통일부가 실행할 수 있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프로그램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추진 내용, 기대효과를 제시하였음.

- 남북한 공동 하천, 삼림관리
- 남북 이산가족 2·3세 동반 행사
-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행사
- 남북 문화유산 공동 발굴
- 금강산, 개성, 백두산 관광
- 모자보건 및 여성교류
- 동북아페스티벌 - 동아시아해 크루즈
- 한반도 공동 수호단
- 남북한 공동 국제대회 참여
- 통일문화주간

## I. 연구 필요성 및 배경

-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연설에서 밝힌 ‘남북한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의 사회문화 교류가 무엇보다도 필요함.
  -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점철되면서 남북한 주민의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신뢰관계의 구축 계기가 날로 멀어지고 있음.
  - 5.24조치 이후 누적된 남북한 주민간의 심리적 피로감과 괴리감을 해소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인 ‘희망의 새 시대’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의 통일, 사람의 통일, 문화의 통합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성 대두.
  
- 남북한 주민의 사회문화 교류는 정치적·제도적 통일을 시작하는 지점인 동시에 70년여 년 동안 축적된 분단체제로 깊어진 심리적·문화적·삶의 이질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하며 친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함.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한 간 접촉·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신뢰감을 다지는 데 대단히 중요함.
  - 또한 민족 동질성 및 공동체성을 21세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방적으로 재구성하여 다주체적 통일 문화의 구현, 나아가 남북 통합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문화적 이질화로 인하여 법·제도적 통일 이후 발생 가능한 남북한 주민 간 갈등과 충돌을 완화하고 민주적 소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사회문화의 교류를 통한 남북한 주민의 생활문화, 심리 및 의식세계에 관한 선(先)경험과 이해는 대단히 중요함.
  
- 독일의 경우,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ehrung)를 추진하여 통일 전 동서독의 사회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통일 이전 동서독 사회문화 교류는 통일에 기여하였고, 통일 이후 사회

갈등과 혼란을 줄여 사회통합에 기여함.

- 남북한 주민의 접촉면을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층위로 확장하여 문화의 심층적인 공유성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작업은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확장에 기여할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주민 접촉면 확대를 위하여 생활 및 심리적인 차이를 분석하여 사회문화적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II. 이론적 배경

- 제도적 통일과 실질적 통일을 함께 생각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남북 상호간의 이해, 관심 및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진행될 사회문화적 교류를 위하여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초적인 동질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임.
- 동질성 회복은 지속발전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경쟁과 상생 협력의 환경에 적응하려는 요청에서 나오는 글로벌 스탠더드로부터의 남북 간 편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특히, 동질성 회복과 관련해서 남북의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적 차이는 사회화 인간의 측면임. 따라서 그것은 첫째로 교육, 가정, 직장, 여가(체육)생활 등 표명적인 생활이며, 둘째로 언어, 인지 가치관 등에 관한 것임.

### 1. 남북한 주민의 이질화 실태

#### 가. 남북한 주민의 생활 영역

##### 가) 남북한 교육 분야 차이

- 교육 분야에서 특히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의무교육 과정의 내용임.
- 우선 초등교육 과목을 보면 남한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도덕, 사회 등임. 북한에서는 혁명력사, 국어, 수학, 자연, 음악, 도화공작(남한의 미술 및 실과 과목에 겹친다), 체육, 공산주의 도덕 등임.

- 북한의 초등교육 과목에는 혁명력사라는 특이한 과목이 존재함. 이 초등교육 과정은 학령전 아동인 6세부터 15세까지의 6년간이며 평균적으로 아동발달 시기를 포괄하고 있음.
  - 혁명력사 과목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태어나면서 완성된 수령 전형의 위대성과 업적으로써 아동들을 충성심을 가진 조직생활형 인간으로 교육하는데 있음.
  - 혁명력사 교육은 소학교 2년(8세)에 시작되는 소년단 조직생활의 사상투쟁과 사회정치활동의 실천으로 강화됨.
  
- 소년단 조직은 학교를 단으로, 학급을 분단으로 구성되며 분단 안에는 5~7명(아동인구가 많았을 때는 최고 10명 이상도 되었다)을 망라한 소년반이 있음. 학교 소년단에는 소년단 지도원(유급 청년동맹 일꾼), 분단에는 분단 지도원(담임선생) 이라고 하는 성인들의 지도조직이 있음. 소년단 학생간부로서는 학교 소년단에 단위원장 1명, 단 부위원장 3명, 단위원 다수(학급 수보다 많다)가 있고 분단에 분단위원장, 부위원장 3명, 분단위원 다수, 소년반장 다수 및 각종 부문책임자들이 있음.
  
- 학급당 간부가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상교양과 사상단련을 집행하고 있음. 이처럼 혁명력사 등 사회정치과목에 강력한 힘이 집중되면서 사실상 초등교육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참된 아들딸”로 키우는 마당으로 기능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혁명력사 교육은 전성설(前成說)적인 수령 전형을 본보기로 하여 아동들을 조직생활에 철저히 복종되는 인간으로 키우는 것임. 따라서 북한의 초등교육에서는 자연주의적 교육관점 뿐만 아니라 환경론이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음. 이 혁명력사 교육이 북한의 초등교육 과정 내용이 보여주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음.
  
- 둘째, 북한의 초등학교 교육내용에서 큰 차이를 이루는 것은 남한의 도덕에 비한 공산주의 과목임. 남한의 도덕과목은 전통적이나 가치가 상실되지 않은 덕목들,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를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화 발달 내용들, 그리고 지속 발전 가능하고 글로벌 상생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형 도덕내용들로서 글로벌스탠더드에 근접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의 공산주의 도덕 과목은 상기에서 언급한 혁명력사의 변형

비전에 불과함. 결국 공산주의도덕 과목도 혁명력사 과목이 달성하려는 수렁에 충실한 조직생활형 아동으로 교육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목에 불과함.

- 셋째, 남북한 국어 과목은 “작문”과 “대화” 단원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남한의 작문에는 설명하는 글, 평가하는 글, 이야기 글, 추천하는 글, 광고하는 글, 자기의 전기를 쓰는 글, 여행의 글, 독서 감상글 등이 있음. 북한의 경우 이야기 글, 여행 글, 독서 감상글 정도에 그치고 있음. 그리고 남한의 대화 단원에는 듣기와 말하기, 대화 예절, 연설, 토론, 면접 등이 있는데 비하여 북한은 소년단 조직생활 중 사상투쟁이나 생활총화에서 실천적인 자기비판 및 동무비판 토론이 고작임. 이 현상은 남한의 민주사회, 세계화를 지향함에 있어 초등교육 과정에서부터 이에 부응하는 것임. 반면 북한의 조직생활 사회, 선군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임. 이에 남북한 초등 국어 교과목만 보더라도 사회 지향점과 수준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넷째, 남한의 초등교육과정 내용에는 사회라는 과목이 있지만 북한에는 이에 견줄만한 과목이 부재함. 남한의 사회 과목에서는 근대화 이후로부터 글로벌 상생협력이 선진화에 이르는 사회의 교육적 요구가 반영됨. 그러나 북한 교육은 조직생활 사회, 선군 사회의 사회적 요청으로 인해 혁명력사와 공산주의 도덕 과목과 동일한 카테고리라 충분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남한의 초등교육 과정 중에 실과 과목을 구태여 비견될 과목으로 꼽는다면, 도화공작 과목의 “공작”단원임. 남한의 고도성장과 산업화, 수출대국, IT 선진국, 세계 10강에 진입한 나라, 한류의 나라 등 물질 문화적 풍요성과 연계될 수 있는 초등 교과임. 그러나 북한은 사회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낙후한 나라인 현실이 반영된 부분임.
- 따라서 남북한 초등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아동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되어 형성되는 두 생산인구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및 형식적 조작기 등의 과정을 지나면서 지적 발달 준비 정도의 차이를 가히 예상할 수 있음.

- 이 글로벌 스탠더드로부터의 북한의 편차, 즉 남한의 도덕, 사회, 실과 과목의 부재, 국어 과목에서의 부분적 단위 부재 등으로 인한 편차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적 학교 교육의 시작인 초등 교육에서의 남북 동질성 회복의 과제로 필히 대두됨.
- 초등 의무교육 과정 내용과 비슷한 방법으로 남북의 중등 의무교육과정 내용에서 나타나는 동질성 회복 문제를 살펴보면 유사한 경향을 볼 수 있음. 즉 초등과정을 이수한 아동의 편차가 중등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2012년부터 법령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분리를 제정하였음. 그 이전까지의 세대들은 1967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한 고등중학교제에서 교육을 받았음. 이로써 그 동안 북한에서는 아동과 사춘기로 생리적 육체적 및 정신적 차이가 생긴 청소년은 무분별하게도 학업과 생활을 한 교정 안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음. 결국 고등중학교 졸업생은 인민군대 복무생활에 적응하도록 교육받은 셈임.
- 북한의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의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소년 노동 강도가 질적으로 다름. 즉 초등 과정에서는 농촌동원이나 군사훈련의 숙소가 자택인데 비하여 중등 과정에는 자택을 멀리 떠나 농촌 또는 군사야영지 등의 집단 합숙임. 형식상 노동법으로는 청소년 노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소년단 및 청년동맹 조직 생활상 사상단련이라든가 실습(실과와 유사한 과목)과 같은 교육 과정이 실시되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 과정에 폐철, 폐지, 폐비철, 외화벌이 과제, 인민군대 지원물자 과제, 철도지원물자 과제, 도로 담당구역, 선거선전, 집단체조 동원 등 각종 세외부담이 조직적으로 할당되고 있음. 그 결과는 생활총화에서 사상 투쟁적으로 진행되고 학부모의 가정혁명화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중등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걸친 청소년이 특징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평균적인 특징은 사회화 발달 미숙, 부정부패, 무보수동원관념 등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남.
- 사회화 발달 미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으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이 동일한 교정에서 중등교육과정을 실시하면서 크게 관련된다고 발



달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부정부패 관습은 폐철, 폐지, 폐비철, 외화벌이 과제, 인민군대 지원물자 과제, 철도지원물자 과제 할당 등이 집단소유 하에서의 계획적 배급경제 제도에서 불가능한 자원 수집이 조직생활체제 안에서의 사상투쟁과 사상단련이라는 강제에 의해 형성됨. 왜냐하면, 국가 및 사회 공동재산에 대한 절도나 횡령이 없이는 사실상 북한의 공식적인 규범 하에서 다양한 과제 할당을 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임.
- 무보수 동원 관념이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지배하게 되는 이유는 평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전시와 같은 총동원을 전 교육과정에 일상화·생활화되었기 때문임. 농촌동원, 군사훈련, 도로담당구역 관리, 선거선전, 집단체조 등 동원에서의 감독이 사상 투쟁적이고 생활총화적인 조직생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라는 관념은 존재하지 않음. 북한의 조직생활에서는 “혁명가는 직업이 아니다”는 고전관념을 강조하며 오로지 수령에게 만족과 기쁨을 드리기만 하면 혁명가는 높은 정치 도덕적 긍지를 느끼며 빛나는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교육해 왔음. 이처럼 상기에서 살펴본 혁명력사나 공산주의 도덕 과목이 전 사회를 일색화하며 지배하는 정치적 조직생활에 의하여 6살 아동시기부터 철저히 교육 준비시켜 왔음. 북한의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노동력의 교환이라는 관념은 전혀 없음.

- 이렇듯, 글로벌 스탠더드로부터의 남북의 편차, 즉 사회화 발달 미숙, 부정부패 및 무보수동원 노동 관념 배양을 제거하는 것은 중등 의무교육 과정에서의 남북한 동질성 회복 과제로 대두됨.

## 나) 남북한 가정생활 차이

- 남북 간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사회문화적 차이’라고 볼 때, 본 과제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남한의 시장경제 시스템 안에서 형성된 가정생활 모습과 북한의 “배급경제<sup>1)</sup>” 체제 내에서 나타난 사회문화적 차이.

---

1)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배급경제(간단히 ‘배급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정규적 카테고리 에 그 계보를 두고 출발하고 소여 변형과 변질을 경유하여 지금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개념을 반영, 함의시킨 설명상 편의스러운 경제관련 조어(造語)라고 보아야 할 것임. 단 내용적으로는, 1) 주민일반배급, 2) 기관배급(소집단배급) 및 3) 개인자체구입의 세가지 유형의 혼재이며, 특징은

-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특징지어지는 가정생활 모습과 북한의 “조직생활 제도<sup>2)</sup>” 하에서 나타난 사회문화적 차이.

○ 본 연구에서 “가정”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보통 부양가족 성원으로 구성된 가구 세대임.

- 경제활동 가정이란 건강인(健壯人)이 자기의 가용자산(可用資産)으로써 부모, 자녀, 노인 등의 가족 부양이 이루어지는 삶의 개별 단위임.
- 경제활동 가정이 개별 사회마다에 적응평균(適應平均)적으로 운영되는 과정과 현상에서 사회문화적 차이가 발생함.
- 시장경제 체제인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집단소유 문화가 주류를 이룸. 즉, 남한의 경우 가족은 생산단위인 “가계(家計)”라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은 배급사회이기 때문에 소비단위라고 할 수 있음.

○ 90년대 중반까지 북한 주민들은 집단주의 경제 체제에 살면서 가사 도구 (리어카, 절구, 삽 등)는 “당연히 마을(인민반)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는 “사실상 공동소유”에 가까운 가정생활 문화가 있음.

- 즉, 북한 또한 자산(절구, 생활 도구)을 가지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빌려 준 이웃집에 가서 찾아서 사용해야 함. 만약 이런 관습에 순응치 못하여 표정이 변하거나 언성이 굵지 못할 경우 “(절구)주인”은 이웃과 갈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인민반으로 부터 정치적·행정적인 압력을 받아 사회정치적, 행정적인 소외를 받음.
-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일반 주민들은 배급을 받기 보다는 생필품을 스스로 “자체구입(自體購入)”해야 하는 부담감이 가중되면서 가정 문화가 변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 사회에서는 “양심과 도덕이 사라졌다”라고 인식.
- 이러한 현상은 시장경제 체제만을 경험한 남한의 입장에서는 “양심” 또는 “도덕”의 문제로 이해되거나 납득되기 어려운 문제임. 왜냐하면 사회주의 배급제를 경험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경제 문화적 지점에서 일탈된 것이기 때문임.
- 탈북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붕괴 및 흡수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을

1)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0에 가까운 어떤 극한에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임.

2) 북한의 “정치조직생활제도(간단히 ‘조직생활제도’ )” 역시, “사회정치적 생명체” 라는 것 속에 계보를 두고 있으나 상당한 질적 변화를 거치어 현실적으로 존립하고 있는 사회 개념에 관한 조어임. 내용적으로는 평시(구사회주의체계의 존재하던 시기)의 “조생제도”와 선군시기(구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시기)의 “선군제도”로 구분됨. 또한 그 둘 사이의 경계는 “선군후로”적 운동 및 그 역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정해야 함.

모델로 할 경우 북한의 사회 무질서, 가정파괴 등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전 북주민에게 식량 등 생필품 일반 배급제도 및 과소지 방지를 위한 주민제도 실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볼 수 있음. 이러한 주장은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제도를 재확시키려는 것과 아무 차이도 없는 정책적 대안임.

- 극복해야 할 가정생활의 중요한 차이를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살펴보면,
  - 첫째, 북한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시장경제 사회에 진입시키려는 “분리자립”의 준비가 결여된 생활 모습을 가지고 있음. 즉, 현재 북한 가정은 전통적 유교식 교육과 “배급경제”적 가정 교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시장경제 사회로 분리 자립시킬 성공 확률은 매우 낮음.
  - 그 원인은 북한 주민 가정의 환경이나 가족 성원에게 존재하는 “내적성숙 요인”이, 경제주체인 가계(家計)로서 체험이 전무(全無)한 반면, “배급제도”의 수동적 소비자 육성만 재생 반복하였기 때문임.
  - 둘째, 북한의 가정 경제 교육은 현재 북한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의 집단주의 고수 원칙과 연동되면서 오히려 강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음. 그 가정 경제 교육의 탈출구에 대한 자기 봉합을 시행함으로써 “악순환”이 강화된다는 것이 남북한 주요 차이임.
  - 셋째, 북한 가정의 경제 교육 및 정권의 집단주의 원칙의 강도를 극복하고, 현재의 북한 “장마당” 환경과 국제사회의 폐쇄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시장 경제적인 여건은 북한 주민의 가정 경제 문화적 패턴에 변화를 일으키기에 매우 역부족임. 이것 역시 남북의 주요 차이임.
- 사회문화적 가정이라고 보면, 아동발달의 첫 교사 또는 후원자의 기능과 역할을 노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지도와 지지에 포함된 자녀의 관계 측면을 고려해야 함. 그런데, 이 측면은 북한의 정치조직생활 제도적 배경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
  - 북한의 절대적이고 신격화된 수령관은 이제 두 세대(약 60년)의 장기적 역사를 기록하였음. 가정에 환원된 중요 이미지가 “아버지”라는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존재였음. 6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북한 가정의 보통 아버지 지위는, 상벌(賞罰)적 원리에서의 “당근”이라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다루는 사회적, 가정(家政)적 자리가 되지 못하고 단순한 “채찍”

이라는 권위적인 행위자 입장임.

- “어머니” 개념은 본래 노동당이었으나, 90년대 이후 “어머니”도 “가출”로 말미암아, 보통 어머니가 이제 명실 공히 가정의 사회 경제적 존재로서 자리를 점하고 있음.

○ 변화를 이상과 같이 설명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적 사회에 존재하는 평균적인 의미의 가정과는 아직 거리감이 많.

- 예를 들면, 80년대까지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나쁜 자녀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으면 나도 지금쯤 만경대 혁명학원을 다니고 있겠다”는 소박한 희망을 피력하였음. 또는 책벌을 받은 부친을 따라 온가족이 함께 추방된 자녀들은 한결같이 그 부친을 원수처럼 증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즉, 불충(不忠)한 부친은 가족 내 불효(不孝)의 공격 타겟, 이제는 그 주먹조차도 무력하게 된 것임. 이 두 가지 생각과 행동의 공통 배경에는 절대적이고 신격화된 조생 제도적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임.

○ 즉,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 이것이 남북한 가정의 사회문화적 주요 차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물론 혈연적 아버지는 북한에도 확실히 존재함. 그러나 ‘아버지’가 사회적으로도 확실히 각인된 존재이거나, 지적, 도덕적 발달 및 인성과 사회화 성숙에서 모델이 되고, 성숙 과정을 지지해주는 정신적 인 아버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흔드는 정치조직 생활 제도의 위협요인도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음.

## 다) 직장생활

- 남북한 간 ‘직장생활 영역에서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무엇을 볼 것인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살펴보고자 함.
- 주민이 소속되는 정치조직생활 단위가, 기본적으로 그가 다니는 직장에 존재.
- 직장직위 여하에 따라 그에게 주민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됨.
- 기본적으로 그가 배치된 직장직위 여하에 따라 주민에게는 노동, 교육 및 의료 제도 혜택이 적용됨.

- 북한에서 “직장”이란, 주민에게 있어서 공식적 소속과 사회적 노동이 실현되는 일터라고 정의할 수 있음. 구체적인 직업 범주로는 부원, 사무원, 군인,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이 있음.
  - 남한에서의 직장생활과 명실 공히 완전한 차이점은, 북한의 직장은 모든 주민이 반드시 소속되고 활동해야 하는 정치조직 생활 단위로 존재함. 이것은 고금동서에 가장 특이한 북한사회의 모습임. 물론 90년대를 거쳐 정치조직의 실질적 활동의 목적이나 그 통제 수준은 많이 달라졌으나 기본적으로 그 존재와 위력은 건재함.
  - 근로자는 노동시간(혹은 “행정시간”이라고도 함)일지라도 그 정치조직의 행사가 있으면 생산노동을 중지하고 거기에 우선 참가해야 함. 또한 행정 책임자는 조직행사 동원을 보장해 주어야 함.
  
- 또한, 근로자(=조직성원)는 생산 활동이나 각종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잘못(조직생활에서는 “결함”이라고 함)을 행정단위 책임자로부터 “행정적으로” 지적받거나 제재 받는 일도 있지만, 동시에 정기적으로 주 1차 열리는 정치조직 생활총화(總和) 모임에서 “사상적으로” 자기비판 및 호상비판을 실시함.
  - 만약 근로자가 결근하거나 조퇴할 경우 행정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직 책임자에게 사정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함.
  - 특히 당원의 경우, 비록 직장이지만 가장 중요한 관심은 소속된 당조직 생활에 있음. 직맹원이나 농근맹원, 청년동맹원과 다른.
  
- 직장생활시 정치조직생활의 일상적 중요성은 북한 주민에게 이른바 “사람과의 사업”에 자연히 무게를 실는 관습을 배양해 줌. 관심의 초점은 생산 실적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대한 객관적 평가 보다 관계에 치중하게 됨.
  
- 직장생활에서 비교적 차이가 큰 것은 근로자의 직장직위 여하에 따라 각종 주민제도가 작동하는 점임.
  - 첫째, 해당지역에 주민의 거주등록이 되려면 그의 직장배치가 확실히 선행되어야 함. 여기서 직장배치 항목에는 노력과견장 및 노동수첩 등록(배치확인), 해당 정치조직 생활 단위의 등록, 군사등록 및 식량공급 등록 등이 있음.
  - 둘째, 근로자가 개인적 용무로 도 경계를 넘어 여행을 하거나 출장 가

려면 주민제도의 한가지인 여행 혹은 출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이 수속단위 역시 직장 행정책임자 직할의 기요(記要)부처의 기능임. 근로자는 발급 신청을 직장 내의 수순을 밟아 기요에 제출, 기요부원은 이것을 당국에 제출하여 증명서를 교부함.

- 셋째, 북주민에게 있어서 직업, 거주 및 이동의 자유라는 습관이 없는 것은 역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책임감이 결핍되는 양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예를 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의 결여, 이동이주를 적극적인 생계 수단으로서 활용하지 못하는 등을 의미함. 이러한 소극적 혹은 수동적인 노동 태도의 극복은 시장경제에서 노동의 질에 관한 기본적 조건의 하나가 될 것임.

- 북한은 근로자가 직장직위 배치 여하에 따라 그에게 무상 배급, 자녀의 무료 교육 및 무상 의료의 제도적 혜택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 우선, 혜택의 질적인 면을 제외하고 “제도적 혜택”에 따른 무료 수혜 영역은 북한 사회가 실제로 붕괴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동 확장되었음.
  - 즉, 이러한 수혜 대상자들이 존재하는 직장의 모든 물자나 자금은 쉽사리 도난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왜냐하면 사회주의 제도적 혜택의 정당성 하에서는 시장경제의 사적 소유 관념이나 관행이 없거나 매우 희박하기 때문임.

## 라) 여가생활

- 남북한 주민의 여가생활에서 전반적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주민들이 일상적인 여가 시간을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물음으로 정리하고자 함.
- 남북한을 비롯하여 상식적으로 “일상적인 여가(日常的인 餘暇)”라고 하면 수입을 목적인 노동시간, 가사를 위한 시간 및 수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의미함.
- 일상적인 여가 시간이 남한 주민에게는 하루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간을 보냄.

- 연구에 참여한 피면담자에 의하면, 우선 직장에 다니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보충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부업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고 응답함.
- 그러나 부업이 주업으로 변경된 사람들, 예컨대 정규적인 직장이 없거나 “종합시장” 등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일상적 여가란 존재할 수 없음.
- 한편, 각종 행사라든지 사회노동 등에 동원되거나, 출장 업무 혹은 장기 외부동원의 경우 북한 주민들은 가사 등을 위해 소비할 시간이 없음. 또한 각종 행사 등 사회노동 시 허무한 대기 시간이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함. 이런 인공적인 “여가시간”이 있을 때 소위 여가생활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됨.
- 때와 장소 등 처한 경우는 모두 다르지만 유사한 패턴이 있음. 예를 들면 포커놀이, 독서, 텔레비 시청, 끼리 회식, 오락회 등이 있음.

## 나. 언어생활, 인식의 차이

- 개인적 발달과 성장에 의해 도달되는 “마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모습은 특히 언어생활 혹은 인지라는 측면에서 남북한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음. 물론 언어생활은 교육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될수록 그 중복을 피하여 서술함.
- 언어(수를 포함한 기호처리 일반도 염두에 두고)는 인지~지적발달 등 두뇌의 정보처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개인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침.
- 특히 본 장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임. 첫째는 개념형성에 관한 능력이며 둘째는 어휘의 절대부족임.
- 첫째,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은 개념형성에 관한 능력, 특히 인문사회 분야에 관한 개념형성 능력에 상대적으로 “지적장애(知的障碍)”가 있음. 즉 남북의 평균적 차이가 벌어졌다는 가정 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유로운 개념형성은 학원과 연구의 자유로운 사회 환경에서 가능함.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광범위해진 근대국가 체제에서의 국제적인 공교육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놓는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인문사회 과목의 교육 내용 및 방법으로는 북한 아동 및 청소년의 개념형성 능력에 상대적인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

- 둘째, 북한 주민을 국제기준으로 보면 어휘의 절대부족 환경에 놓여 있음. 특히 외국어를 연구나 교육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자연과 사회, 인간에 관한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나 인류역사에 축적된 인류문화유산에 어휘상의 접근이 사실상 막혀 있음. 아무리 문법체계가 정리되어 있고 또 외국어에 숙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생활 속에 살아있는 어휘가 절대부족하고 인류의 지적 문화유산을 이해하기 전에는 사고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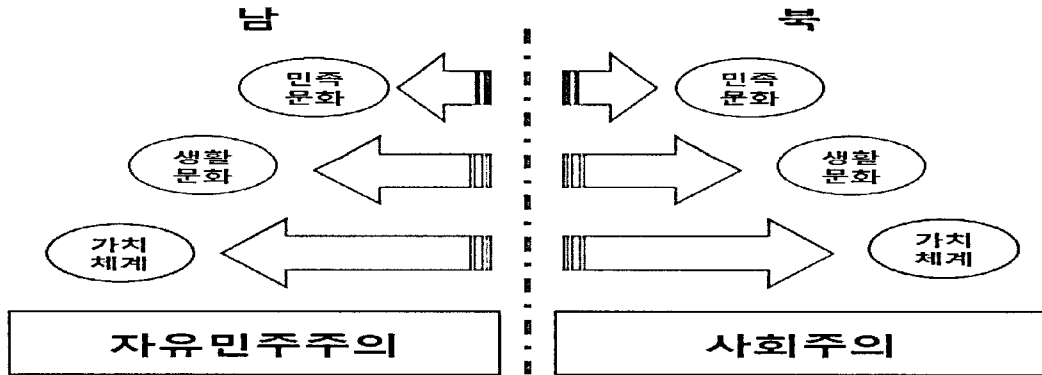
## 2. 남북한 주민 접촉면 확대의 중요성

- 분단이 장기화 되면서 남북 간의 동질성은 약해지고, 이질성이 강화되고 있음.
  - 분단 70년을 맞으면서 남북 간에는 다양한 이질성이 확대.
  - 공통의 언어, 역사, 문화 등 민족적 동질성이 약화되고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하여 가고 있음.
-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대변되는 체제와 이념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은 매우 큰 상태임.
  - 남한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하고, 다원화된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하고,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사회문화를 개편하는 작업을 수행함.
  - 남한은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인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문화를 갖춰가고 있으나, 북한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형국임.
- 체제와 격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질성은 이제 남북한 주민의 생활문화에까지 영향미침.
  - 남한의 경우 의식주 모든 면에서 개성을 강조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획일적 문화를 강요하



고 있는 상황임.

- 남북 간의 문화적 이질성과 격차는 통일 이후 사회문화 통합에 큰 장애 요인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측됨.



[그림1] 남북 문화의 이질화

- 남북 간의 교류 단절은 남북의 이질화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의 교류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사실상 교류가 끊긴 상태임.
  - 대부분의 남북한 주민들은 상대의 지역을 방문하거나 상대 지역의 주민들을 만난 경험이 없는 상태임.
-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통합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나, 사람의 통합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 독일의 경우, 분단되었던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체험함.
- 남북 간의 문화적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좀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함.
  - 상대방의 체제와 이념, 상대 지역 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을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음.
  -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상대방을 만나야 함.
  - 만남의 기회를 가급적 많이 가져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줄이는 노력을 순차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함.

- 남북한 당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현가능한 내용과 방식의 교류를 추진하고, 그 교류 틀 안에서 주민들이 만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어서 주민간의 만남은 쉽지 않은 상태이고, 북한의 고립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을 제3국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음.
  -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교류를 추진하는 것임.
  - 기존에 시행해 왔던 만남과 교류, 쉬운 교류부터 추진하여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통일’ 정책은 현재 남북의 대치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임.
  - 우리 정부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국정목표로 선정하고,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국정과제 125)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사람과 사람의 작은 만남으로 시작하여, 점차 교류를 확대해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의 실질적 통일을 준비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 교류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평화통일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1)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2) 남북 간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공동 구축, 3)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제안함.
  - 또한 이 같은 문제를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논의기구인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음.
  - <드레스덴 구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이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남북한의 호혜적 교류 협력을 통해 동질성을 높여 나가려는 정책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음.(통일연구원, 2014: 9)
  - 특히 <드레스덴 구상>에서는 남북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데,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증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은 남북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 당국자간 그리고 주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3.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특징과 의미

#### 가. 사회문화 교류의 개념

##### ○ 교류란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함

- 한자어 交流는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이어 흐르는 상태를 의미함.
- 이질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과 생각과 문화를 교환하며 서로 통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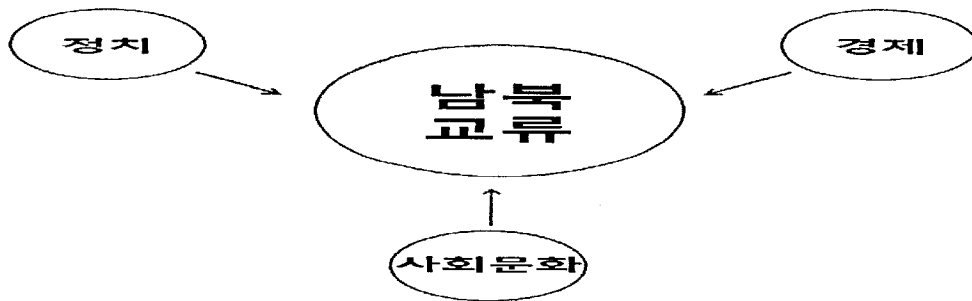
##### ○ 교류의 내용 측면에서 볼 때, 교류는 크게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인적 교류는 만남을 통하여 생각과 경험 등을 나누는 행위를 말함.(김창환 외 2013)
- 물적 교류는 물건을 교환하는 것으로, 경제 교류, 정보 교류 등을 말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도 남북교류를 크게 인적 교류(왕래 및 접촉)와 물적교류(물자교역)로 구분하고 있음.
- 사회문화 교류는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를 포괄하나, 인적 교류가 보다 중심이 되는 특징을 지님.

##### ○ 교류의 영역 측면에서 볼 때, 남북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교류를 총칭하여 일컫는 말임.

-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를 말함.
- 독일의 경우에도, 정치 분야(정당, 외교, 안보), 경제 분야(통상, 금융),

사회문화 분야(우편/통신, 학술, 과학기술, 환경, 보건, 문화, 청소년, 스포츠, 방송/언론, 도시, 종교단체) 에서 교류가 이루어졌음.



[그림2] 남북교류 영역

-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남북 간의 인적, 물질적 교류를 말함.
  -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는 사회문화 교류를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제2장 제9조)로 명시하고 있음.
  - 즉, 교육 분야, 문학·예술 분야, 보건 분야, 체육 분야, 출판·보도 분야 등 다섯 가지 분야를 핵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교류를 사회문화 교류라고 명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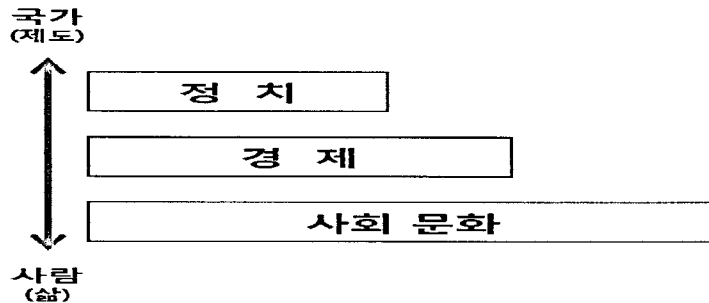
나. 사회문화 교류의 범위

- 사회문화는 정치, 경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 창출하고 공유하고 있는 정신적 유산, 가치체계, 언어, 규범 등을 총칭하여 사회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음.

<b>정치</b> (정치, 외교, 국방)	<b>경제</b>	<b>사회 문화</b>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	-----------	-----------------------------------

[그림3] 사회문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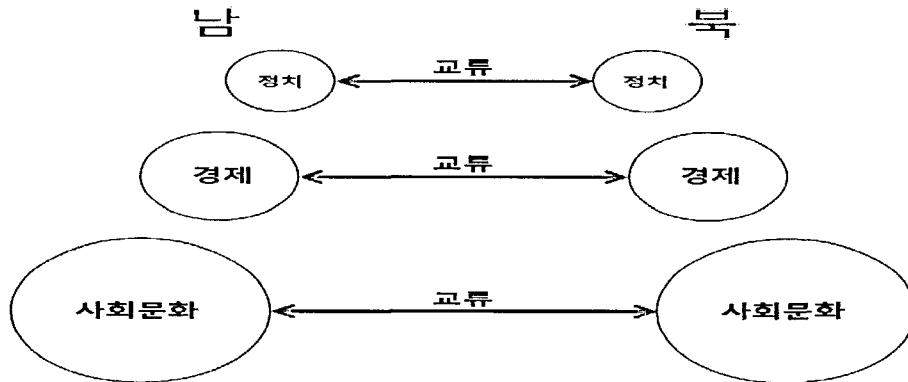
- 남북 간의 교류는 정치교류에서 출발하여 경제교류로 확장될 수 있고, 넓게는 교육, 학술, 문화, 체육, 도사, 보건, 종교 등 사회문화 교류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그림4] 남북교류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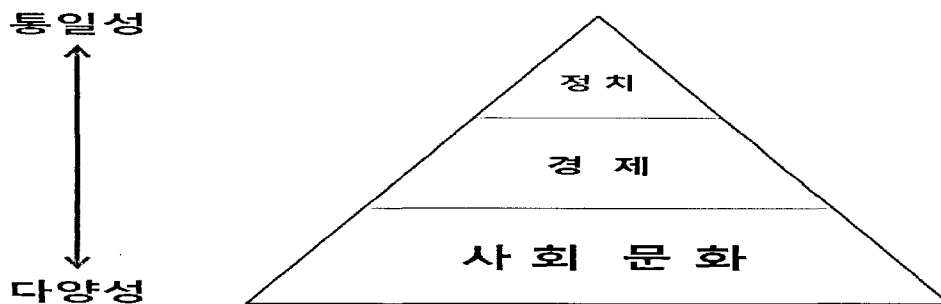
- 정치교류는 정치 분야, 군사 분야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로 인적이고 물질적인 교류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
  - 정치교류는 정치, 외교,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으로 출발하되,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제도적 통일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정치교류는 주로 정부가 주도하며 이루어지게 됨.
- 경제교류는 경제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경제적으로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가 시작되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지향함.
  - 경제교류는 정부가 주도하여 밑그림을 짜지만 민간 기업 또는 경제단체가 실질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됨.
- 사회문화 교류는 문화, 예술, 과학기술, 도시, 학술, 교육, 스포츠 등 사회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를 의미함.
  - 사회문화 교류는 정치와 경제를 제외한 사회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됨.
  - 사회문화 교류는 분야별로 남북 간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목표로 시작하되, 궁극적으로 남북 간의 사회문화통합을 목표로 함.
  - 사회문화는 인간, 삶, 공동체와 관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관계되는 넓은 영역이고, 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류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문화 교류에서는 정부 보다는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그림5] 남북교류의 분야별 특징

- 정치교류와 경제교류가 제도적 통일(unification)을 지향한다면, 사회문화 교류는 사람의 교류로 시작하여 사람의 통합(integration)을 지향함.
  - 단기적으로는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이질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됨.
  - 장기적으로는 남북 사회문화공동체와 민족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추진됨.
- 정치교류가 통일성을 지향하고, 경제교류가 효율성을 지향한다면, 사회문화 교류는 다양성을 지향함.
  - 통일된 제도 안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함.
  - 즉, 하나의 사회문화 공동체 안에서 생각, 가치,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공존을 추구함.



[그림6]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특징

○ 정치교류의 주체가 정부이고, 경제교류의 주체가 기업이라면, 사회문화 교류의 주체는 민간임.

- 사회문화 교류에서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교 등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고, 따라서 다수의 만남과 교류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남북의 통일과 한민족의 통합이 주변 국가의 동의와 협력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사회문화 교류 역시 주변 국가의 동의와 협력 속에서 탄력을 받고 추진할 수 있고, 특히 해외 한인의 역할이 중요함.
-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의 대상과 주체는 남북한 주민과 더불어 주변국, 해외교포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정치교류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지향점	통일(unification)	통일(unification)	통합(integration)
목적	제도화, 통일성	효율성, 통일성, 국민복리	다양성의 공존 이질감 해소 상호 이해 및 포용
주 영역	정치, 경제, 군사	경제, 과학기술, 환경, 도로, 우편 등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
주 관심사	제도의 통일	제도의 통일	사람의 통합(공동체 형성)
교류의 규모	소수의 만남	다수의 만남	다수의 만남
교류 추진 주체	정부	정부, 기업	민간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교, 해외교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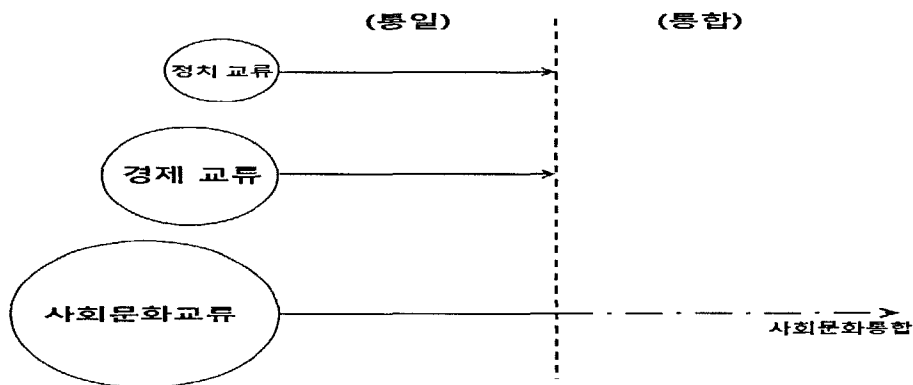
<표1> 정치교류, 경제교류, 사회문화 교류의 차이

#### 다. 사회문화 교류의 목적 및 지향점

○ 사회문화 교류는 일차적으로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 주민 간 접촉과 화합의 기회를 가급적 많이 갖는 것을 목표로 함.

- 사회문화 교류는 학술, 역사, 언어,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종교 등 비정치적인 영역으로서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문화 분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남북 주민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질성을 강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음.

- 사회문화 교류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사회문화통합을 지향함.
  - 정치교류가 남북의 제도적 통일을 준비하고, 경제교류가 경제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면, 사회문화 교류는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지향함.
  - 정치교류가 일차적으로 제도적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사문화교류는 통일의 진행 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문화통합을 목표점으로 지향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한과 통일한국의 미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따라서 긴 호흡으로 장기간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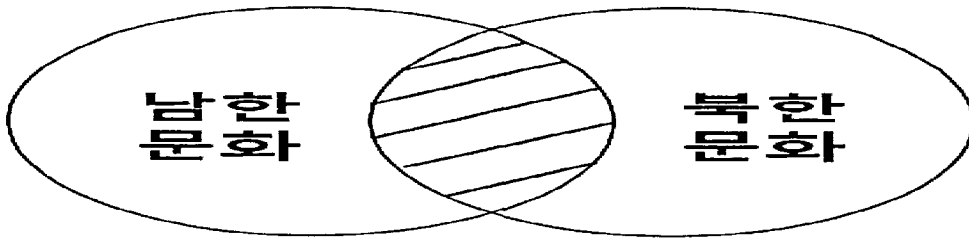
[그림7]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지향점

#### 4. 남북 사회문화 교류 접근 관점

- 남북 간의 사회문화 교류에 접근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접근과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접근이 그것임.
- 상호문화주의는 문화와 문화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 및 교류와 만남을 중시하는 관점임.
  - 상호문화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보다 그들의 관계에 주목.(변중현, 2013: 41)
  - 또한 단일한 정체성 보다는 다중적 정체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체계와 문화를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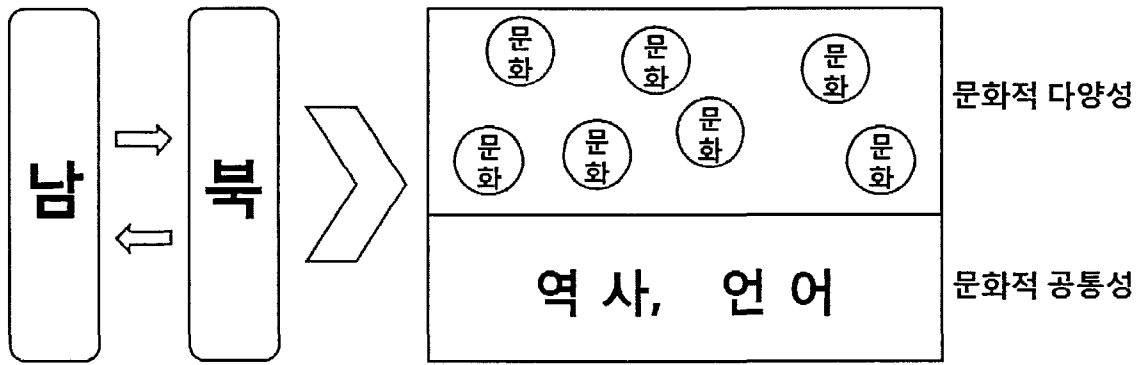


-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교류와 만남을 통한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이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가능.
- 남북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강화하고 이질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향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관점.



[그림8] 상호문화주의적 관점

-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접근임.
  - 하나의 국가 또는 공동체 안에 여러 민족 또는 여러 문화가 존재할 경우,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음.(박형빈, 2013: 213)
- 위 두 가지 접근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통합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관점들이라고 판단함.
  - 남북 교류 단계에서는 상호문화주의가 가장 적절한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북 문화의 공통성을 확대하여 나가고, 이질성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됨.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 하나의 사회문화공동체가 형성될 때인 남북통합 단계에서는 상호문화주의와 더불어 다문화주의 접근도 필요한데, 이는 역사, 언어 등 문화적 공통성의 기반 위에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



[그림9] 사회문화 교류의 방향

- 이미 남한 사회의 경우, 인구 구조상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고, 북한이탈 주민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관점이 중시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서 다문화주의적 관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도 다문화주의적 관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

### III. 해외 사례 분석

- 본 장에서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해외사례를 독일과 북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 독일은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하였고, 통일 전 사회문화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였던 점에서 사회문화 교류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음.
- 북아일랜드는 내전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폭력과 갈등을 경험하였던 국가로서, 사회문화적 갈등을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하였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고 살펴보고자 함.

#### 1. 동서독 사례

##### 가. 동서독 교류정책

##### 1) 서독의 통일 및 교류 정책

- 서독의 통일정책 및 동독정책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음.(Glaab, 1996).
- 첫째 단계는, 1949년부터 1963년까지의 관계단절 단계.
  - 1949년 독일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 BRD)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DDR) 양 국가가 수립되었고, 양 국가는 자신들의 국가 만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할슈타인-독트린)을 추진하였음.
  - 또한 동서독 문제와 관련된 상대방의 정책 제안들에 대하여 일체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음.
- 둘째 단계는, 1963년부터 1969년까지의 관계정상화 모색 단계.
  - 1962년 쿠바 위기가 평화롭게 극복되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으로 인한 긴장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동서독의 정치 환경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음.

- 당시 서독 외교부장관 슈뢰더(Gerhard Schroeder)는 <변화의 정책 (Politik der Bewegung)>이란 이름하에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에 조심스럽게 개방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음.
- 또한 서독 의회는 동유럽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만장일치로 표명하였음.
- 케네디 대통령이 베를린을 방문한 이후 신동방 정책의 대변인이었던 에곤 바(Egon Bahr)는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ehung)> 구상을 밝히게 되는데, 이러한 구상을 당시 서 베를린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W. Brandt)가 이후 본격적으로 정책화 하게 됨.
- 빌리 브란트는 1963년 “작은 걸음 정책(Politik der kleinen Schritte)”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서베를린 시민들이 동독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
- 1966년 기독교민주당(보수당)과 사회민주당(진보당)이 거대 연정을 구성하면서, 외교부 장관을 맡게 된 빌리 브란트는 동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평화를 모색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됨.
- 이때부터 동독과의 관계 개선도 모색되었음. 인적 교류가 가능하게 하였고, 점차적으로 관계 정상화가 모색되었음.

○ 셋째 단계는, 1969년부터 1982년까지의 관계정상화 및 교류협력 기반 구축 단계.

- 1969년 사회민주당(SPD)이 집권하면서 서독의 동독정책 및 통일정책에 획기적 변화가 나타났음.
- 1969년 서독 수상에 취임한 브란트는 취임연설에서 동방정책을 발표하고, 다음 해에 “분할된 독일에서의 민족의 상황”이라는 연두교서에서 “독일 민족은 하나이나, 독일 땅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요지의 ‘1민족 2국가론’을 제기하여, 동독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였음.
- 1971년 12월 동서독 간에는 ‘민간인과 물자의 서독과 서베를린 간 통과교통에 관한 동·서독 정부간 협정’과 ‘여행 및 방문완화와 개선에 관한 서베를린 시 당국과 동독정부간 협정’이 체결되어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됨.
- 브란트는 꾸준히 대 동독 접근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70년 2차례 걸친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마침내 동서독 양국 정부는 1972년 서로를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을 체결하였음.
- ‘기본조약’에 따라 동독은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받았고, 서독은 독일의 단독대표권과 할슈타인 원칙 등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여 동서독 간에 교

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됨.

- 동서독 관계에서는 비록 타협될 수 없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하였지만,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반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많은 분야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큰 진전을 이룩하였음.
- 1974년에 브란트의 후임으로 슈미트 수상이 취임한 이후 동독에 대한 실용주의 노선은 더욱 강화됨.
- 슈미트 수상은 통일논리를 전개하기보다는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분단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음.
- 곧 ‘고위정치(high politics)’보다 ‘하위정치(low politics)’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용주의적 정책을 구사하여 동서독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였음.(최의철, 2000)
- 슈미트 수상은 동독이 서독과의 각종 교류에 협력할 경우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였고, 동독의 태도에 따라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부각시켰고, 1975년부터 대동독 무상지원을 개시하는 등 동독 지원을 급속히 증대시켰음.

○ 넷째 단계는, 1982년부터 1989년까지의 교류협력 활성화 단계.

- 1982년 정권교체와 함께 기독교민주당의 콜(H. Kohl) 정부가 탄생하였는데, 콜 정부는 교류협력 정책을 계승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보수당인 기민당의 동독 정책은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냈고, 국회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됨.
- 콜 정부의 동독 정책에서는 양 독 국민들의 공동체의식이 강조되었고, 동서독 주민의 만남과 교류가 강조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동독과 많은 조약이 체결되었고, 상호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됨.
-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 동서독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1987년에는 동독 공산당 서기장인 호네커(E. Honecker)가 서독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성과를 가져옴.
- 이러한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과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관계단절기 (1949-1963)	관계정상화 모색기 (1963-1969)	교류협력기 (1969-1982)	교류협력 활성화기 (1982-1989)
정부형태	기독교민주당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통일정책	적대정책(냉전)	변화 정책	동독 접근정책	교류협력 정책
교류정책	관계단절	관계정상화 모색	교류협력 기반 구축	교류협력 활성화

<표2> 서독의 통일정책 및 교류정책

## 2) 동독의 통일 및 교류정책

- 구동독은 한 마디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국가.
  -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이 국가사회 전체를 지배하였음.
  -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은 단지 도그마가 아니라, ‘행동을 이끄는 지침서’가 되어야 하며, ‘혁명적 정치를 이끄는 과학적 근거’로서 사용됨.(Grundlagen des Marxismus-Leninismus, 1960)
- 구동독의 통일정책 및 서독정책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음.(Kuppe, 1996)
- 첫째 단계는, 1945년부터 1955년까지의 통일정책 추진단계.
  - 독일공산당(SED)은 분단 직후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할 때까지 통일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였고, 동독 정부가 추진한 통일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의미.
- 둘째 단계는, 1955년부터 1961년까지의 통일선전단계.
  - 당시 동독 통일정책의 핵심은 연방제 형태의 국가제도를 수립하는 것이었음.
  - 구동독에게 있어서 독일 통일은 ‘사회주의 안에서의 통일’을 의미.
  - 즉, 진정한 통일을 추구하였다기 보다는 통일을 정치 선전용으로 활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던 중 1961년 베를린 장벽을 건립하면서 동독은 폐쇄정책으로 전환함.

- 셋째 단계는, 1961년부터 1971년까지의 분단인정 및 상호승인 정책 추진단계.
  - 당시 동독은 서독 및 많은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고, 동독은 이때부터 통일을 주장하기보다는,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독립된 국가의 길을 가려고 하였음.
- 넷째 단계는,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조약정책 단계.
  - 1971년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공산당 서기장이 된 후 동독은 서독과 많은 조약을 체결하며 실익을 추구하였음.
  - 한편으로는 빌리 브란트의 교류협력 정책에 호응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국가 인정, 경제적 지원 등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정책을 펼쳤음.
  - 그러나 동서독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동독 정부는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
  - 동서독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체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국민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관계단절기 (1945-1955)	통일선전기 (1955-1961)	분단인정 및 상호승인 (1961-1971)	조약정책기 (1971-1989)
정부형태	독일공산당	독일공산당	독일공산당	독일공산당
통일정책	통일정책	통일선전정책	상호 승인정책	조약정책
교류정책	사회단체간 교류	사회단체간 교류	폐쇄정책	소극적 교류정책

<표3> 동독의 통일정책 및 교류정책

#### 나. 동서독 사회문화 교류 추진 현황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교류협력은 전방위로 확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짐.
  - 사회문화 교류 역시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교육, 보건, 대중매체, 중

교단체 등 전 분야에서 이루어졌음.

- 여기서는 사회문화 교류 분야 가운데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 추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 1) 문화 분야 교류 실태

### 가) 문화 교류 현황

- 1945년 분단 이후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 시기 까지 동서독간의 문화 교류는 제한적으로 추진되었음.
  - 연극단, 오케스트라 등 예술인들의 상호 방문 공연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짐.
-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와 더불어 동서독간의 문화교류는 거의 단절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 동독 정부는 서독의 문화를 “제국주의적 문화”로 지칭하고, 자신들이 주창하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와의 차별성을 강조함.(통일원, 1993, 609)
  - 이러한 입장의 동독은 문화교류를 통하여 서독 문화가 동독에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였음.
- 1963년 빌리 브란트가 서베를린 시장에 취임한 이후 “작은 걸음 정책”이 추진되면서 동서독 문화교류는 다시 재개됨.
  - 동서베를린 예술단들의 상호 교환 방문이 이루어짐.
  - 그러나 교류가 본격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지는 못하였음.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동서독간의 문화교류는 활기를 띠게 되었음.
  - 미술분야, 전시회, 출판분야(신문, 서적, 잡지 등), 오케스트라, 영화 분야의 교류가 추진됨.
  - 특히 오케스트라 방문공연은 문화교류 가운데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음.
- 1986년 문화협정(Kulturabkommen)이 체결된 이후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짐.

- 문화협정은 동서독간의 교류를 예술분야뿐 아니라 학술, 대중문화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동서독 정부 대표는 22개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여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만들어내기도 했음.
- 문화협정 체결 이후 경제교류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학술, 체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여졌고, 동서독 도시와 대학 간의 자매결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동서독 간 문화협정은 상호 이질감을 해소하고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문화협정 안에는 연극, 문학, 음악, 미술, 교육, 학문, 출판, 도서관, 역사, 대중매체, 스포츠, 청소년 분야까지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취급되었음.
- 1986/87년부터 “동서독 공동 협력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문화협력 공동사업 목록에는 조형미술, 박물관, 유적 보존, 예술대학(전문대학), 문학 및 도서관, 음악, 연극, 영화, 초청연주 등의 분야가 명시되어 있었음.(통일원, 1993: 628)

		제한적 교류협력기 (1945-1963)	교류협력 추진기 (1963-1972)	교류협력 제도화기 (1972-1981)	교류협력 활성화기 (1981-1989)
교류 정책	서독	소극적	적극적	적극적	적극적
	동독	소극적	소극적	소극적	소극적
주요 프로그램		연극단 오케스트라	예술단	미술 전시회 출판 오케스트라 영화	조형미술 박물관(유적 보존) 예술대학 교류 문학 및 도서관 음악 및 초청연주 연극 및 영화
법/제도				동서독기본협정	문화협정 공동협력 사업계획
교류 주체	서독	민간주도	민간주도/정부지원	민간주도/정부지원	민간주도/정부지원
	동독	정부	정부	정부	정부

<표4> 시기별 동서독 문화 분야 교류

## 나) 문화 분야 관련 동서독 협정

### ○ 동서독 기본조약 (1972.12.21)

- 동서독 '기본조약'은 동서독간의 교류·협력을 제도화시키는 바탕이 되었음.
- 이 조약 이후 동서독 간 교류와 협력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음.
- 기본조약 제7조에는 “쌍방은 본 조약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호 이익을 위하여 경제·학술·기술·교통·사법·우편·전신업무·보건·문화·스포츠·환경보호 등의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추가 협정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 문화협정 (1986.5)

- 동서독 문화협정은 사회문화 부분의 교류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동서독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함.
- 문화협정은 모두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스포츠, 대중매체, 청소년/학생 교류 등 문화 분야 전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 문화협정에 따른 동서독 공동사업계획서

- 동서독 간 문화, 학술, 교육 분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동사업계획서를 수립하였음.(통일원, 1993: 622)
- 문화와 예술, 학술 및 연구, 교육, 기타 분야의 협력으로 구분하여 교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다) 문화 분야 교류 실적

### ○ 문학, 서적, 영화, 오케스트라, 정기간행물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가 추진됨.

- 이 가운데 서적 교류량을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 권)

연도	동독에서반입	동독으로반출	연도	동독에서반입	동독에서반출
1964	6,192	9,119	1971	6,015	14,107
1965	6,710	10,156	1972	6,377	13,323
1966	5,943	9,148	1973	6,007	14,263
1967	5,910	10,581	1974	6,318	14,891
1968	5,119	9,872	1975	6,533	15,383
1969	5,181	11,457	1976	5,375	
1970	5,686	12,285			

\* 출처 : 통일원(1993). 동서독교류협력사례집, 614.

<표5> 동서독 간 서적 교류량

## 2) 스포츠 분야 교류

### 가) 스포츠 교류 현황

- 동서독 스포츠 교류는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루어짐.
  - 서독은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고 양독 간의 관계를 정상화 한다는 기본 방침에 입각하여 스포츠 교류를 실시하고자 하였음.(통일원, 1993, 666)
  - 그러나 반대로 동독은 서독과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동독체제의 우월성을 알리고, 사회주의 이념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였음.
  - 동독 주민들에게는 자의식과 자긍심을 불러 넣어 주고, 동독 국가의 우월성을 널리 알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군사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음.
-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1961년까지 동서독 간에 스포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1956년 코르티나 동계올림픽부터 1964년 동경 하계 올림픽까지 동서독은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함.
  - 그러나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이후에는 동서독 간 스포츠 교류가 급격히 줄어들음.
- 1972년 동서독 간 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스포츠 교류 역시 활기를 띠게 됨.
  - 기본 조약 안에는 상호 이익을 위해 스포츠 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강

화하여 나가는 내용이 포함됨.

- 동서독 체육단체인 독일체육연맹(DSB, 서독)과 독일체조체육연맹(DTSB, 동독)은 기본협정에 의거하여 스포츠 교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갔고, 이후 동서독 간의 스포츠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됨.

○ 그러나 동서독 간 스포츠 교류의 본질적인 장애와 한계는 극복되지 못하였음.

- 양 측 정부의 스포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로 인하여 교류가 제한을 받아 옴.
- 특히 동독은 체육인들이 서독으로 망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교류를 제한하거나 동독 스포츠 인들을 감시하는 정책을 취해왔음.

		제한적 교류협력기 (1945-1961)	교류협력 단절기 (1961-1966)	교류협력 제도화기 (1972~1982)	교류협력 활성화기 (1982~1989)
교류 정책	서독	적극적	적극적	적극적	적극적
	동독	적극적	소극적	소극적	소극적
주요 프로그램		상호 왕래 단일팀 구성	단일팀 구성	뮌헨올림픽참가 상호 교류	청소년 스포츠교류 도시간 자매결연
법/제도				동서독 기본조약 스포츠협정	문화협정
교류 주체	서독	민간주도	민간주도/정부지 원	민간주도/정부지 원	민간주도/정부지 원
	동독	정부	정부	정부	정부

<표6> 시기별 동서독 스포츠 교류

## 나) 스포츠 교류 관련 동서독 협정

○ 체육협정(1974)

-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지 2년 후 동서독은 체육협정을 체결함.
- 체육협정에서는 체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합의하고, 국제 올림픽위원회와 국제 체육단체의 규정을 준수하며 쌍방 간 교류를 추진하는 내용과 더불어 소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 스포츠 교류 실적

- 독일체육연맹(DSB, 서독)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1957년부터 1961년 8월 16일까지 각각 1530(1957), 386(1958), 624(1959), 683(1960), 738(1961) 차례에 이르는 활발한 스포츠 교류가 전개되었음.(통일원, 1993: 658)
- 동서독 기본조약(1972) 및 체육협정(1974) 체결 이후 스포츠교류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교류 경기와 교류 참가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년 도	교류계획 및 실시			참가인원	무산된 경기	
	계획된 경기수	실시된 경기수	실시율		서독측	동독측
1974	40	37	92.5	486	2	1
1975	62	53	85.5	612	2	7
1976	64	61	95.3	623	2	1
1977	71	62	87.3	633	3	6
1978	75	74	98.7	867	0	1
1979	75	68	90.7	736	2	5
1980	77	56	72.7	627	12	9
1981	72	65	90.3	819	3	4
1982	80	78	97.5	919	2	0
1983	80	76	95.0	1,081	2	2
1984	75					
총 계				7,403	30	36

\* 출처: 통일원(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표7> 동서독 체육교류 현황

### 3) 학술 분야 교류

#### 가) 학술 교류 현황

- 서독 정부는 학술 분야에서도 동서독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가급적 많은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였음.
  - 서독의 경우, 많은 접촉과 교류 계획은 관련 단체와 개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직접 추진되었고,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였음.

- 그러나 동독의 시각은 서독과 근본적으로 달랐는데, 동서독간의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서독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 분야에서의 이익을 얻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
- 1945년 분단 이후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 이전까지 동독 정부가 접촉과 교류에 많은 제한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동서독 간 대학, 연구기관, 학회간의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었음.
  - 그러나 동독의 제한 정책은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서독으로 이주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함.
-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동독 정부의 허가를 얻어 서독을 방문하여 연구협력 활동을 할 수 있었던 학자들은 공산당원이거나 정치적인 신념이 강한 학자들이었음.
  - 그러나 빌리 브란트의 '작은 걸음 정책' 추진으로 동서독간의 화해 기운이 돌기 시작한 1963년부터 동독 정부는 다시 학자들 간의 접촉과 교류를 허용하기 시작함.
-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학술 분야에서의 동서독 교류는 다시 활발해졌음.
  - 서독 정부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방내독성, 독일학술교류재단(DAAD) 등을 중심으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였음.
  - 재정지원은 주로 다음의 영역에 투입됨: 1) 학술접촉을 위한 직접지원, 2) 양측의 합의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작성된 사업지원, 3) 독일학술교류재단(DAAD)이 관장하는 대학생과 학자의 교환과 동독행 연구여행 및 자료수집여행 지원, 4) 동독과 동베를린 학자들의 서독 내 학술행사와 기관의 방문 여행, 5) 서독과 서베를린 학자들의 동독 내 학술행사와 관련된 기관의 방문 여행, 6) 동독과 동베를린 출신학자들의 서독에의 교수 초빙 등.
- 1986년 동서독 간 문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동서독 학술교류는 더욱 활발하여졌음.
  - 동서독 교수, 연구원, 대학생들의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내독성, 독일학술교류재단(DAAD), 독일연구재단(DFG) 등 정부기관과 더불어 폴

크스바겐재단(VW-Stiftung), 쾨르버 재단(Koerher-Stiftung) 등 민간기관에서도 지원함.

- 1988/89년도 동·서독 사업계획으로는 약 100개의 사업이 합의되었는데, 그 중 21개는 학술 프로젝트로서 사업을 분담 수행하는 연구, 연구여행, 콜로키움 등과 같은 것이 있었음.

		제한적 교류협력기 (1945-1961)	교류협력 추진기 (1961-1972)	교류협력 제도화기 (1972~1982)	교류협력 활성화기 (1982~1989)
교류 정책	서독	적극적	적극적	적극적	적극적
	동독	소극적	소극적	소극적	소극적
주요 프로그램		대학 교류 연구기관 교류 학회간의 교류		학자간 교류 대학생 교류 연구여행 학술행사	학자간 교류 대학생 교류 학술프로젝트 연구여행 콜로키움
법/제도				동서독기본조약	문화협정
교류 주체	서독	민간주도/정부지원	민간주도/정부지 원	민간주도/정부지 원	민간주도/정부지 원
	동독	정부	정부	정부	정부

<표8> 시기별 동서독 학술 교류

## 나) 학술 교류 관련 동서독 협정

- 문화협정(1986)
  - 동서독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은 문화협정에 포함되어 있음.
- 문화협정에 따른 동서독 공동사업계획서(각년도)
  - 문화협정에 따른 동서독 공동사업계획서 안에 동서독 간 학술 교류를 위한 사항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 동서독 과학기술협정(1987.9.8)
  - 동서독은 1987년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합의하였음.

- 협력 분야로는 “자연과학과 공학 및 정신과학과 사회과학 전 분야를 포함하며 전자의 경우 특히 자연과학과 공학에 관련된 제 문제를 포함한다.”(제2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음.

#### 다) 학술 교류 실적

- 연방내독성을 통한 지원 실적(통일원, 1993: 558)
  - 1985년에 동·서독 학자들 200여명이 각각 상대국을 방문하였음.
  - 1987년에 동·서독 학자로서 지원받은 사람의 수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동독으로 학술목적으로 연구여행을 한 교수와 학생 역시 지원을 받았음.
  - 1988년에 약 400명의 서독학자들과 약 250명의 동독학자들이 상대 지역을 방문할 때 재정지원을 받았음.
- 독일학술교류재단(DAAD)을 통한 지원 실적(통일원, 1993: 561f)
  - 문화협정이 체결된 2년 후인 1988년 여름부터 DAAD가 대학생교환 및 학자교환을 수행
  - DAAD가 접수한 문의건수는 1,400개, 신청건수는 308개
  - 171명의 서독 대학생과 학자가 단기체류 및 장기체류자로서 동독 측에 통보되었고, 동독 측은 163명의 교환대상자를 통보함.

#### 4) 청소년 분야 교류

##### 가) 청소년 교류 현황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1년 베를린 장벽이 건설될 때까지 동서독 청소년간의 접촉과 왕래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짐.
  - 이 시기 동서독 청소년간의 접촉과 교류는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김창환 외, 2013)
  - 그러나 당시 냉전기에서 양 청소년 단체 간 교류의 성과는 미미하였고,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 동서독 간의 왕래가 단절되었음.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은 청소년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 1973년 8월 동베를린에서 열렸던 ‘제10회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기회로 독일연방청소년연맹(DBJR, 서독)과 자유독일청소년단(FDJ, 동독)간의 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동독과 서독 대표단의 상호방문과 공동세미나 개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박성희, 1999)
- 1978년 1월, 수년간의 협상 끝에 DBJR과 FDJ는 상호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 커뮤니케 작성에 합의하였음.
- 1979년 4월, DBJR의 회장이 처음으로 FDJ를 공식 방문하게 되었고, DBJR과 FDJ는 1980년부터 매년 교대로 ‘청소년들의 관심, 특히 평화에 대한 관심을 대변키 위한 각기 다른 체제하의 청소년 단체들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김창환 외, 2013)

- 1981년 10월, 당시 연방 수상이던 헬무트 슈미트와 동독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 간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양독 간의 청소년 교류 활성화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그 이후 양독 간 청소년 교류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통일원, 1993)
- 이 합의에 의하여 동서독 청소년들의 단체관광여행이라는 새로운 만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됨.
- 1982년 기독교민주당의 콜 정부가 정권을 이양 받은 이후에도 청소년 교류 정책을 계승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제한적 교류협력기 (1945-1961)	교류협력 단절기 (1961-1972)	교류협력 제도화기 (1972~1981)	교류협력 활성화기 (1981~1989)
교류 정책	서독	소극적	적극적	적극적	적극적
	동독	소극적	소극적	소극적	소극적
주요 프로그램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 수학여행	청소년단체 수학여행	청소년단체 수학여행 자매결연
법/제도			동서독 기본협정 정상회담	청소년교류협정	문화협정
교류 주체	서독	민간주도	민간주도/정부지원	민간주도/정부지원	민간주도/정부지원
	동독	정부	정부	정부	정부

<표9> 시기별 동서독 청소년 교류

## 나) 동서독 협정

### ○ 동서독 청소년 단체여행에 관한 합의서(1982.9.20)

- 1982년 독일연방청소년연맹(DBJR, 서독)과 자유독일청소년단(FDJ, 동독)간의 동서독 청소년여행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됨.
- 이 성명서 안에는 “양측은 청소년 관광여행으로의 경험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두 단체 간의 원만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서독의 청소년여행사와 동독의 FDJ 청소년관광여행사간의 서베를린에서의 동서독 청소년 단체여행 교환에 대한 협약(1987. 9. 1)

- 1987년에는 동서독의 청소년 전문 여행사간에 단체여행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고, 청소년 여행에 관해 서로 협조하기로 함.
- 위 협약에는 동서독 청소년들이 상호 방문하는데 있어 실무적으로 담아야 하는 규정들이 상세하게 규정되고 있음.

## 다) 교류 실적

### ○ 동서독 청소년 간 단체관광자수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히 증가함.

- 주로 서독의 청소년들이 동독을 방문하였으나, 동독의 청소년들이 서독을 방문하는 숫자도 증가하였음.

(단위 : 명)

연 도	동독으로 여행한 서독청소년들	서독으로 여행한 동독청소년들
1981	10,000	-
1982	15,000	300
1983	22,000	1,200
1984	36,000	300
1985	50,000	1,000
1986	50,000	3,000
1987	77,000	3,760
1988	78,000	5,000

\* 출처 : 박성희(1992).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20.

<표10> 연도별 동서독 청소년 단체관광자 수

## 5) 종교단체(교회) 교류

### 가) 종교단체 교류 현황

- 통일 전 동서독 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은 교회, 특히 개신교였음.
  - 개신교회는 1945년 분단 직후부터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만나 교류하는 것을 시도하였음.
  - 교회의 교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음.
    - 교회협의회(총회) 차원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였고, 동시에 개별 교회들도 상호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노력을 기울임.
    -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교류협력을 추진 : 세계교회협의회 정례 회의에서 동서독 교회 지도자들이 만남의 기회를 가졌고, 베를린 성서 주간, 열린 연합 캠핑 등의 기회를 통하여 동서독 교인들과 대학생들이 교류를 함.
    - 서독교회에서 동독 교회에 막대한 재정 지원 : 서독교회의 동독 지원은 동독교회 전체 예산의 20~25%를 차지하였고, 교회 건물을 보수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물품지원도 이루어짐.(김누리 외, 2006b: 441)
- 독일신교연합회(EKD)는 분단 초기부터 민족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독일 통일이 곧 동·서독 교회의 소망이라고 주장하며, 동·서독 정부 간의 견 차이를 해소하는데 중개역할을 하고자 했음.(통일원, 1993: 729)
  - 동독주민의 대부분이 신교도임을 감안할 때 EKD 만이 동·서독 주민들로부터 공히 신뢰를 받고 있었고, 동·서독의 국가 지도층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임.
  - 동독 정부 역시 동독 교회의 활동에 일정 부분 자유를 보장하였고, 동독의 모든 기관 가운데 교회에게만 어느 정도 독자성을 부여하였음.
- 1945년 분단 이후 1961년 베를린장벽 설치까지 동서독 교회는 여러 형태의 방법으로 교류를 하였음.
  - 특별히 종교대회를 개최하여 동서독 교인들이 만나게 되었는데, 1954년도 라이프치히 종교대회에는 동서독인 65만 명이 참석하여 만남과 접

축을 가졌음.

- 베를린 장벽 구축 이후 동서독 종교인 전체의 만남은 불가능하게 되었음.
  - 그러나 서독에서 개최된 종교대회에 동독 교인들이 참여하여 교류가 지속됨.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종교단체간 교류도 활발해졌음.
  - 동서독 교회는 자매결연을 맺고 신도간 교류를 추진하였음.
  - 동독 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더욱 촉진됨.
  - 동서독 교회간 교류는 통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는 독일 통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됨.
-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동서독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음.
  - 1980년대 동서독 개신교회가 단합하여 미국과 소련의 미사일이 독일 내에 배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함께 벌였음.
  - 동서독 교회의 만남과 교류는 동독 교회가 동독 정권에 대항할 에너지를 축적하고 동독을 붕괴시키는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함.
  - 특별히 이러한 상호교류를 계기로 1981년부터 동독에서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동독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이 기도회는 1989년 10월 동독 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음.

		제한적 교류협력기 (1945-1961)	교류협력 추진기 (1961-1972)	교류협력 제도화기 (1972~1981)	교류협력 활성화기 (1981~1989)
교류 정책	서독	소극적	적극적	적극적	적극적
	동독	소극적	소극적	소극적	소극적
주요 프로그램		종교대회 재정지원	종교대회 재정지원	종교대회 자매결연 재정지원	종교대회 자매결연 상호방문 재정지원
법/제도				동서독 기본협정	
교류 주체	서독	교회주도/정부지원	교회주도/정부지원	교회주도/정부지원	교회주도/정부지원
	동독	정부/교회	정부/교회	정부/교회	정부/교회

<표11> 시기별 동서독 종교단체 교류

## 나) 종교단체 교류 실적

- 동독 교회 지원에서는 교회간, 교회단체간 자매지원 형식을 띤 지원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였는데, 1957년에서 1990년까지 총 13억 970만 마르크에 달했음.(통일원, 1993: 742)
- 이 외에도 독일 신교연합회를 통한 지원 등 막대한 금액의 현금과 현물이 동독에 지원됨.

## 다. 독일 사회문화 교류 평가

### 1) 특징

- 독일의 사회문화 교류는 작은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부터 출발함.
  - 서독은 동서독이 한 민족임을 강조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음.
  - 작고 점진적이고 꾸준한 교류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음.
  - 그러한 작은 걸음 정책이 동서독 간 교류를 시작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주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동서독 사회문화 교류는 단계적으로 추진됨.
  - 먼저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교류에 합의하고, 각종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를 제도화 하고, 마지막으로 교류를 활성화 하는 단계를 밟았다고 할 수 있음.
- 서독은 가급적 많은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였음.
  - 동서독 주민간의 인적접촉을 허용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
  -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였음.

- 동서독 교류는 법적/제도적 기반 하에 수행됨.
  - 동서독 기본조약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로 협정을 체결하였음.
  - 문화협정, 체육협정, 청소년협정, 과학기술협정, 학술교류협정, 공동성명, 공동계획서 등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되었음.
  - 이러한 규정들은 교류를 제도화 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함.
- 동서독의 교류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추진됨.
  - 사회 각 분야의 단체와 협회들이 교류를 주도하고, 정부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류를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였음.

## 2) 평가

- 통일 전 동서독 사회문화 교류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사회문화 교류가 동서독 통일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동독과 통일 환경의 변화는 결국 교류협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고,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사회문화 교류의 증대는 독일민족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음.
  - 독일 통일 이후에도 통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갈등과 혼란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그러나 동독 측은 교류가 동독 사회의 이완과 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교류에 임하였기 때문에 각종 제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류가 제약을 받기도 함.
- 문화 분야 교류에서도 동서독의 입장차가 커서 동서독 문화교류는 한계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음.
  - 서독측은 하나의 문화, 민족문화를 유지하고 동서독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질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문화교류를 추진하였으나,
  - 동독은 서독과의 교류를 통하여 사회주의 문화의 독창성을 선전하려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였고, 서독 문화의 유입을 크게 유려하여 차단하려는 정책을 취함.
- 스포츠 교류를 통해 동서독 주민들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여 민족 화

합을 이루고자 한 서독 정부의 의지와 노력 역시 동독 정부의 방해 및 대응정책으로 인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동서독간의 스포츠 교류는 다른 교류와 마찬가지로 동서독 스포츠인간의 접촉과 만남을 자주 갖도록 하여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동서독 청소년 교류 역시 서독 정부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제한적 성과로 평가 받고 있음.

- 동독으로의 여행 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일부 서독 청소년들은 동독에 대한 친근감과 더불어 한 민족이라는 공통의 귀속 감정을 가지기도 하였음.
- 서독 정부는 애초 미래 사회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의 인간적 만남을 장려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양독 관계를 심화시키고 민족적 공통의식이 유지되도록 의도하였으나, 상호 이질감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통일원, 1993)
- 또한 동독 정부의 제한된 조치에 의하여, 서독 청소년들은 동독 청소년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서로에 대하여 많이 알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는 한계도 노정되었음.
- 서독 청소년들은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동독 주민들과 대화와 접촉을 하면서 동독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서독과 상이한 동독의 체제 및 생활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고찰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

○ 동서독은 사회문화 분야에서 전면적인 교류를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한계를 노정하였다고 종합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은 통일 이후 동서독 간 심리적 갈등에서 그대로 표출됨.
- 통일 이후 동서독 지도자들은 하나 같이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성장한 상대 지역의 주민들을 잘 몰랐고, 이해 부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음.(양영식 외, 1991: 34)

## 2. 북아일랜드 사례

- 북아일랜드의 분쟁 해결과정에서 NGOs가 중요한 역할을 맡음.
  - 신 구교 주민들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남북 주민간의 접촉에서도 적용 가능함.
  - 1976년에 세워진 The Ireland Funds는 12개의 나라에서 3000개의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 자선네트워크로, 아일랜드의 평화, 화해, 예술과 문화,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북아일랜드의 평화구축 활동들을 The Ireland Funds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NGO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함.

### 가. 174 Trust

- 이 기관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방학프로그램 및 미취학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 최근에는 「유소년 축구 선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음.
  - 스포츠를 통해서 Shankill 이웃들과 화해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목적.
  - 참여하는 학생들은 구교 출신과 신교 출신.
  - 다음 세대는 다른 삶의 방법을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신념하에 프로젝트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정착.

### 나. Co-operation Ireland

- 1979년에 상호존중 및 이해를 기초로 설립된 이 기관은 공동체 단위에서 정치적인 동의를 도출하기 위해 일하고 있음.
  - 자선단체로써 북아일랜드 및 아일랜드 내에서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일하고 있음.
  - 분리와 분쟁 문제를 이슈화 하여 다루고 있음.
  - 역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32년 동안, 이 기관은 경계선을 넘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전달하고 통합을 위해 교육을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 「Youth Leadership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이 프로젝트는 강한 리더십을 가졌지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위험도가 있는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일랜드와 영국의 몇몇 회사에서 개인적인 개발, 훈련, 멘토링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해줌.
  -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 가운데 정규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가져옴.

#### 다. Corrymeela

- Corrymeela는 기독교 공동체임.
  - 이 기관의 목적은 북아일랜드에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인 분리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평화를 구축하는 것임.
  - 1965년에 John Morrow, Alex Watson, 그리고 헌신된 자원봉사들과 함께 Corrymeela Centre를 세움.
  - 센터는 거주형태의 공동체로, 방문자들이 며칠에서 일주일까지 함께 생활하며 열린 대화를 경험함.
- Corrymeela에 방문하는 각 그룹들은 그들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
  - 「분쟁 양 측의 희생자들을 위한 치유와 명상프로그램」이 그 예임.
  - 단일민족과 다민족을 가진 그룹, 구교와 신교 출신 학생들의 그룹 등 다양한 그룹을 형성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

#### 라. Habitat for Humanity Northern Ireland

- 북아일랜드에 집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감.
  - 북아일랜드 지역의 분쟁으로 92.5%이상이 종교로 인해 분리되어 거주.
  - 지속가능한 화해를 이루는 방법 중의 하나로 「낮은 소득을 가진 가족들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운영함.
  - 집을 지어줌으로 봉사하는 정신을 키우고 기술과 리더십을 개발하여 화해를 이루는 것에 기여.

- 이 프로그램은 개인이나 그룹들이 그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분쟁의 흔적을 경험하게 하고, 미래를 향해 안전하게 공유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

○ Robinsons과 Taggarts는 서로 다른 공동체 출신의 두 가족임.

- 집짓기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서로의 집을 서로 지어주며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신 구교 두 가족들이 평안하게 조화롭게 산다는 것은 북아일랜드에서 이 기관이 하는 일에 중요한 업적이 될 수 있음.

#### 마. Northern Ireland Children's Enterprise (NICE)

○ NICE는 어린 아이들, 부모님 그리고 성인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를 알아가도록 하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해와 화해의 과정을 가지도록 함.

- NICE는 신구교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연결망을 제공.
- 최근 통계에 따르면, NIC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젊은 사람들의 79%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가톨릭이나 개신교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함.

○ 프로그램의 목적

- 젊은이들, 봉사자들, 부모님들 그리고 공동체 그룹들을 위한 중립적인 만남의 장소를 제공.
- 서로의 공동체를 연결하고자 함.
- 공동체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함.
-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줌.
- 봉사를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바. Sesame Tree Northern Ireland

○ 「Sesame Tree」는 북아일랜드 전역에 Sesame Street 방송 프로그램의 버전을 만듦.

- 이는 분리 지역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

- AIF후원으로 Sesame Tree의 26개 에피소드가 개발되고, 2008년에 방송이 시작 됨.
  - The American Ireland Fund는 백만 달러를 후원하여 북아일랜드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함.
- 3살에서 6살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이야기와 캐릭터들을 통해서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
  - 시리즈들은 아이들의 자기 존중감, 개방, 다른 사람들을 향한 호기심 등이 개발되도록 도와줌.
-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 부모들, 교육자들에게 가치 있는 자원이 됨.
  -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줌.
  - 다양성의 가치와 문제해결 능력 개발 등의 목적을 강조.
  - 북아일랜드에 어린이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
-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웹사이트가 BBC 북아일랜드에 의해서 만들어져 좋은 교육효과를 확대하고 있음.

#### 사. PeacePlayers International

- 두 명의 미국인(Sean and Brendan Tuohey)이 PeacePlayers International (PPI)을 설립하였음.
  - 이는 어린 운동선수들과 그들의 공동체가 농구 경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교육을 받는 것임.
  -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분리된 곳의 중개 역할을 하고자 하며, 미래 리더들을 양성하고, 건강하고 건설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함.
- 2001년부터 PPI는 북아일랜드에서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문제가 있는 지역 45000명의 어린이들에게 나아감.
  - 「교류 농구프로그램」을 통해서 북아일랜드 개신교와 가톨릭 10세에서 14세 아이들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PeacePlayers International은 아이들이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우정을 형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재미있는 환경을 제공.

#### 아. Spring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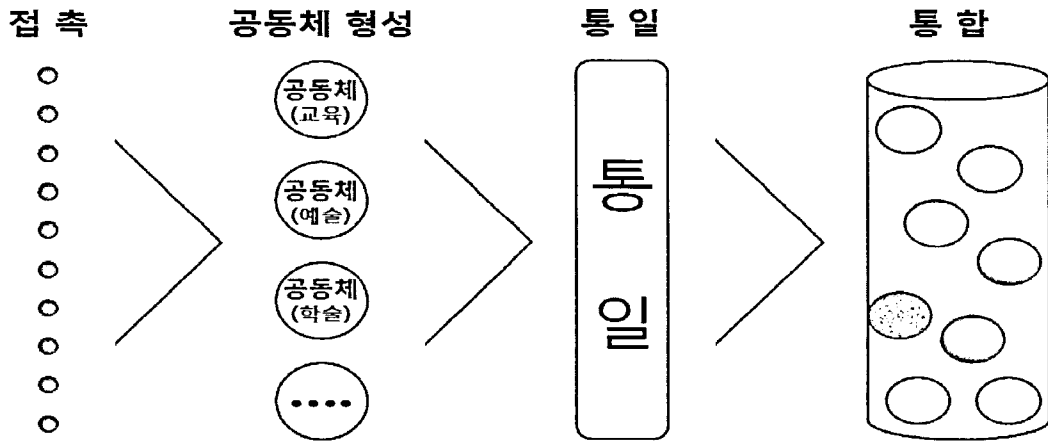
- 「Directions Project」는 이 기관의 주요한 프로그램임.
  - 북아일랜드 갈등의 잔재에 의한 학대, 깨진 가정, 폭력, 자해, 사회로부터 고립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Ireland Fund는 이 프로젝트에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
  - 두 공동체의 갈등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은 개신교와 가톨릭 어린이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고자 함.

### 3. 정책적 시사점

- 지금까지 독일과 북아일랜드의 사회문화 교류를 살펴보았고, 위 사례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 가. 사회문화 교류의 지향점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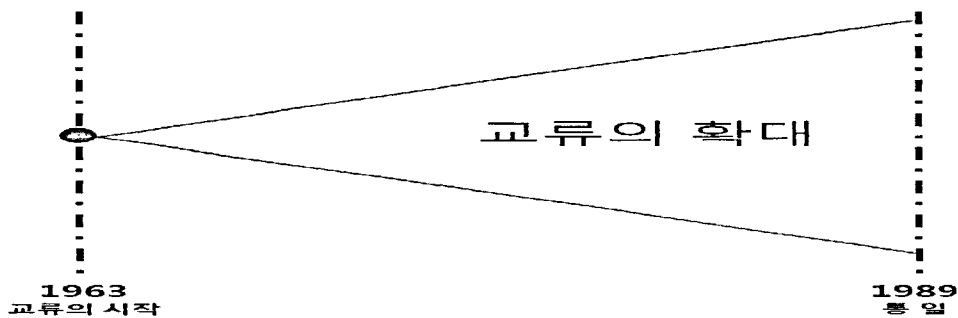
- 동서독의 경우, 이질감 해소 및 상호이해 증진이란 목표 하에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통일을 예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약하였고, 더불어 통일 사회에 대한 지향점이 없었기 때문에 교류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 우리의 경우에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고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문화 교류의 목표와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음.



[그림10] 남북 교류의 단계와 지향점

#### 나. 서독의 작은 걸음 정책에 주목

- 서독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주민간의 만남을 통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인내와 끈기를 갖고 동독과 접촉을 하고 교류를 성사시켰음.
  - 1963년도부터 ‘작은 걸음 정책’을 20년 정도 추진하자 동독의 국경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하게 된 것임.
  - 우리도 작은 교류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가는 전략, 가급적 많은 만남과 접촉을 취하는 것이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은 남북통일의 연착륙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11] 동서독 교류의 과정

## 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지원하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 서독의 경우, 교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와 더불어 각종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교류를 효과적으로 지원함.
  - 주목할 것은 정부 외에도 기업 등 민간에서 재정 지원에 참여한 것임.
  - 우리의 경우에도 사회문화 교류에서 민간의 참여와 기여를 적극 유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라. 민관협력의 중요성

- 동서독 사회문화 교류에 있어서 민과 관이 협력하며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동서독 교류에서 실제적으로 교류를 추진한 주도 세력은 민간이었음.
  - 학교(대학), 청소년 단체, 종교단체, 협회,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주도하여 상호 방문과 교류를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였음.
  - 민과 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가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우리의 경우에도 민간차원의 사회문화 교류가 적극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마. 북한의 소극적 입장을 고려

- 북한은 사회문화 교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 호응하는 분야 또는 방법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동서독 사회문화 교류에서 동독은 지속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고, 서독은 이를 고려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교류를 추진하여 왔음.
  -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약점으로 부각되는 분야 등 민감한 분야는 제외하고, 쌍방이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 또는 쌍방에 이익이 되는 분야부터 합의하여 교류를 추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

- 단순 만남과 교류 프로그램과 더불어 일정 시간(며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
  - 독일의 경우, 만남과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됨.
  - 북아일랜드의 경우, 일정 기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됨.
  
- 남북 사회문화 교류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단순 만남과 상호 교류 프로그램이 중요하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된 이후에는 조금 더 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
  - 이산가족 상봉 시, 유소년 통일 캠프 시, 공동 역사 기행 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
  - 스포츠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집짓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직접 운영한 북아일랜드의 경험은 남북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IV.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현황 및 문제점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여 서술함.

### 1.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현황 및 특징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제도화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1990년에 제정되고, 이어 1993년 남북 간 최초로 제도적 장치인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채택, 발효되면서 이루어졌음. 이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사회문화 교류의 분야를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각종 언론 출판·보도 등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또 사회문화 교류에 관한 조항과 별도로 과학, 기술, 환경분야의 협력과 교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는 기본합의서에 제시되어 있는 분야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 환경 주제를 사회문화 교류범주에 포함시켜 프로그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백학순 외(2007)의 <남북사회문화교류 중장기 로드맵 설정 및 추진 전략 연구>의 보고서에서는 2000년 이후의 남북한 교류사업의 현황을 각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제시하고 있음. 특히 이 보고서에서 참고할 주목할 점은, 사회통합이라는 남북사회문화교류의 방향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함. 하나는 남북한 간의 관계망과 그 내용을 살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류’의 남쪽 주체들 사이의 관계 중심인 민과 관, 민과 민의 관계를 살피는 것임 (백학순외, 2007: 61).
- 특히 남북공동행사는 1989년부터 역사적으로 긴 과정을 밟았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차원의 공동행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6.15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2001년 6월 15일 금강산에서 ‘민족통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그해 8.15민족공동행사, 그리고 그 후 2007년까지 우여곡절 속에서 지속시키려 노력하였음. 이 두 공동행사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민간교류의 물꼬를 텃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음. 먼저 2000년대 이후 2007년까지 각



민간단체별 남북 교류 및 공동행사를 다음 <표12>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남북의 부문 단체	남북한 교류 및 공동행사 내용
노동계	2000. 12 '남북노동자 통일 토론회' 개최 2001년 '5.1절 통일대회' 개최 -> 이후 매해 노동절 행사
여성교류	1991년 반핵평화 의제의 토론회 개최 1993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2001년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 여성부문 교류의제 발전 2002.9. 남북여성 통일대회 2005.9, 2006.3, 2007.5 남북여성대표자 회의 개최
청년, 대학생	2002.9. '남북청년학생대회' 교류모임 -> 2003. 9 북한역사유적방문 행사 2005.5, 2005.7 '남북대학생 상봉모임' 2006.6 대학생 대표자 회의
교육계	2002 북한 어린이 교과서 지원사업 2003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평양방문 2006 '6.15 공동수업' 2007. 8 교사 평양방문
농민교류	2001. 7, 2004 금강산에서 남북농민 통일대회 개최 2007.9 평양에서 남북농민연대모임 개최 2007 전국농민회총연맹, '통일농사운동':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
언론인 교류	2006. 11 언론인 토론회 개최
작가	2005 백두산에서 남북문인대회 이름으로 교류시작 -> 6.15민족문학인협회라는 공동기구 결성 2006.10 금강산에서 6.15 민족문학인협회 모임
종교	1986 스위스, 남북 개신교 종교인 모임 1991 미국 LA 남북불교대표자 회의 1991 네팔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천도교 종교인 모임 1995 뉴욕 조선가톨릭 교회 협회와 접촉  개신교 평양 제일교회와 봉수교회 개관사업 진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육관과 평양신학원 신축, 성경과 찬송가 제작 지원

<표12>부분 단체별 교류와 공동행사 (백학순 외 2007)

- 그러나 2009년과 2010년 남북한 교류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북한의 금강산 위협조치 등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감소되었음. 특히 2010년 5.24조치 후 남북사회문화 교류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류의 사업이 지속되기도 하였는데, 문화, 학술체육, 종교 등 순수사회문화 교류가 꾸준히 진행되었음. 특히 종교활동면에서는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교류가 진행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현황에 대해서 근간에 출판된 <통일백서>와 여러 선행연구들을 참조해 볼 수 있음 (박영정 외 2012; 전미영 2006; 백학순 외 2007; 이우영 외 2001). 특히 박영정 외(2012: 61-70) 보고서에서는 남북한 문화교류현황을 크게 네 가지, 즉 문화예술분야, 문화산업분야, 문화유산분야, 생활문화분야로 범주화 하여 교류협력내용을 서술하였음. 이러한 기존연구물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13>과 같음.

분야	시기	교류현황
문화예술분야 (음악회, 전시)	1990.10.18-23	제1회 범민족통일음악회평양개최
	1990.12.9-12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 서울개최
	1991. 5.1-5	환동해국제예술제 일본개최
	1998. 5.2-12	리틀엔젤레스 예술단 평양공연
	1998.11.3-5	제1회 윤이상통일음악회 평양개최
	1999.12.20	제1회 민족통일음악회 평양개최
	2000.5.24-30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2000.6.4-11	평양교예단서울공연
	2000.8.18-24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2005	6.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서 북한과 남한의 가극 공연
	2008.10.15-17	평양에서 윤이상 음악회 개최(남북음악가 협연)
	2008.2.26	뉴욕필하모닉 평양공연
	2011	서울시향예술감독 평양방문, 서울-평양 교환연구 및 북한 음악가 발굴, 육성 사업에 관한 논의
	2012	정명훈 서울실비교향악단 예술감독 평양방문, 북한은하수 관현악단과 리허설 진행, 3월 파리에서 합동공연
	2002	북한그림 소장작품 전시회 (미국 뉴저지 주 노욕갤러리)
	2002.12, 2004.4	특별기획전: 평양에서 온 무덤벽화 개최 * 6.15, 8.15공동행사 공간에도 미술과 사진 등 전시회 개최
2009	남북여성화가 공동전시	
문화산업분야 (북한애니메이션 한국사회 방영)	1999	인천방송<북한애니메이션의 세계>
	2000	교육방송<애니토피아>
	2000	춘천국제만화축제
	2012	국내 부산영화제에서 북한 영화 상영 <김동무, 날아가다>
문화산업분야 (남북 공동 제작 애니메이션)	2001,2004	<게으른 고양이 덩가>
	2002	<뽀롱뽀롱 뽀로로>
	2001-2003	<왕후심청>
	2004	합작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만화영화창작단 설치, 임가공사업 시작했으나 사업 중단
	2005	<새>
문화유산분야 (교육, 학술)	1997.9 - 2007	북한문화유적 답사 및 조사 청년학생 및 민간단체의 북한 유적 답사(2회), 언론사 취재 및 방송(4회) 고분벽화 사진 및 유물 전시회(6회)
	2004.2	일제약탈 문화재 반환 공동학술토론회
	2006.3.1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2006.4	평양 안학궁터 공동발굴사업
	2006.4-5	벽화 고분 공동조사
	2006.6-10	북한 국보 전시회
2006.8-9	남북문화재도서전	

	2007.5 이후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조사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사업
	2011	5.24조치 후 중단,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김종호우 피해의 발굴터 복구작업 시작
	2013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
	2001-2008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교육사업 진행
	2009.5	문화재반환 축구 불교도 합동법회
생활문화분야 (종교, 민속, 언어 체육 등 포함)	2004.4 이후	(언어)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진행 중 2010년 공동작업 중단, 남북 각각 자체적으로 진행
	2011	거래말 큰 사전 편찬 관련 공동실무접촉, 남북공동편찬회의 재개 및 편찬 자료교환 등 논의
	2001, 2004, 2006	(민속문화) '민족웃 전시회' 한복패션쇼 평양 개최(2001)/MBC, KBS에서 북한의 음식문화 소개
	1998 이후	(민속문화) 민속공연 개최-1998년 리틀엔젤스예술단, 김덕수사물놀이패, 2000년 평양학생소년예술단, 2005년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
	1999.12-2005.8	(대중문화)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에서부터 2005년 조용필 평양공연까지 방송연론사 주도로 평양에 5차례 대중음악 행사 개최
	2003, 2008	(종교문화) 조계종 신계사 봉원공사, 해외약탈문화재 환수운동, 천태종의 영통사 복원공사 관련 불교신자 북한 방문/ 개신교의 봉수교회 준공(2008.7) 및 칠골교회 관련 교류/ 가톨릭의 남북조각가 성모자상 공동제작 (2003.3-5) 및 장충성당 관련 교류
	2009, 2010	(종교문화) 불교: 남북공동법회개최, 중장기 남북불교교류에 관한합의 도출 기독교계: 개성, 평양, 중국에서 실무협의 안중근 기념사업 일환으로 북한 조선종교인협회 동세미나 개최 및 남북공동기념행사 (2009.11, 2010.3.26)
	2011	(종교문화)남북 종교인 공동기도회 개최 불교: 고불법회, 낙성4주년 기념법회 개최 천태종: 개성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의천 910주기 열반 다례제 개최 기독교: 남북공동기도회 개최 천주교: 가톨릭 협의회, 종교교류관련 협의 천도교: 남북합동시일식 봉행
	2012	(종교문화)대북종교교류 실무협의회 개최 장충성당 통일기원합동미사, 신계사 낙성 5주년 합동법회
	2013	(종교문화) 신계사 낙성 6주년 기념합동법회, 영통사 낙성 8주년 기념합동법회, 장충성당 설립25주년 합동미사
	2008	(체육) 북한 선수들 참가 <2008 아시아 시니어 레슬링 선수권 대회, 2008 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남북경기> 남측 선수단 방북 <남북유소년 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 남북태권도 교류행사>
	2009	남북유소년 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
	2012	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북한참가 및 체육교류문제 협의를 위한 대북접촉 추진
	2013	2013 동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 북한 선수 참가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유스리더십 프로그램에 북한 대표 참가 2013아시아컵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 대회에 남한 선수단 방북

\* 위의 표는 선행연구물을 토대로 연구자가 정리한 것임.

<표13> 남북문화교류현황

- 각 위의 범주에 따라 현황의 특성을 제시하면 (박영정 외 2012), 먼저 문화, 예술분야의 교류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은 자본주의 유입에 대한 북한의 경계임. 또한 이 교류는 공연 및 전시 중심의 이벤트성, 일회성이 주였고, 대부분 방송사의 기획으로 대형예술공연이 이루어져 방송언론 중심으로 기획되는 획일성의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예술공연 교류 시 인적, 자원교류의 확대가 필요함. 문화산업 분야의 남북교류는 남한의 ‘한류’가 북한에 유입되는 성과의 이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애니메이션 관련 교류는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그러나 앞으로는 문화체육시설인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체육경기장 등의 인프라 확대, 이에 따른 교류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문화유산 분야는 민족 공통의 기반이 되는 영역임. 정치, 이데올로기 개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재 분야 아이템 확대 및 활용방안이 간구되어야 할 것임. 생활문화분야는 일회성이고 단발적인 이벤트 행사에서 벗어나, 점차 지속적인 교류협력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제도화를 통한 장기적, 전략적인 남북협력단계추진 방안이 요구됨.
  
- 이러한 남북교류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우영(2011: 32-33)은 남북교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대부분 교류는 남한의 대중문화 위주였고, 주로 평양에서 진행됨. 이는 일회성 교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북한의 자세 때문임. 2) 자본과 연결되어 대중문화 교류와 방송이 결합하는 경향이 있음. 3) 음악, 영화 등 특정분야에서만 대중문화 교류가 추진되었음. 4) 대중문화교류 시 북한 대중문화의 남한 사회 소개보다는 남한의 대중문화가 북에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5) 작품이나 장르 그리고 예술인에 따라 남북한의 문화적 반응은 차이를 보임, 이러한 특징은 문제점과 함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방안을 제시하는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

## 2. 기존 남북 사회문화 교류 문제점

- 지금까지 남북 간의 사회문화 접촉 및 교류의 시도와 노력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음. 선행연구에서는 일정한 시기별 남북한 교류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음. 특히 2001년 이우영, 손기웅, 임순희의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전과 후의 사회문화 교류 변화를 분석하며 한계점과 문제점을 제시함.
- 정상회담 전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한계점으로는 1)사회문화교류가 탈이념적이고 비정치적이지만, 여전히 실행 및 성과에 있어서,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쟁점을 벗어나기 힘들. 2) 자본주의, 제국주의 사상 및 문화 유입으로 인한 체제붕괴를 우려하여 북한은 교류에 있어서 소극적 태도를 보임. 3)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화에 따라 상호갈등을 나타내는 경향이 큼 (이우영 외 2000: p60). 이에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북한의 경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선별적 호응에 따라서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의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음(이우영 외 2000: p60-62).
-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후 교류는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이우영 외 2000; 전영선 2006:p 16-17). 1) 남북교류의 범위가 확대되어,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예술, 청소년, 여성, 학술, 민속 등으로 다양화되었음. 2) 남북교류장소가 제 3국에서 남북한 중심으로 옮겨졌으며, 3) 교류형식에 있어, 방송, 언론과의 결합 형태가 많아졌음. 4) 자본의 영향력이 커져서, 일회성의 행사 중심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류사업 중심으로 전화되었고, 추진주체도 개인이나 사업자 중심에서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옮겨졌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문화교류의 한계점이 존재함. 특히 전영선(2006)은 남북문화교육의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함. 교류사업 추진과정 및 협의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대북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지향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인적교류,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제한성을 지적하면서, 문화교류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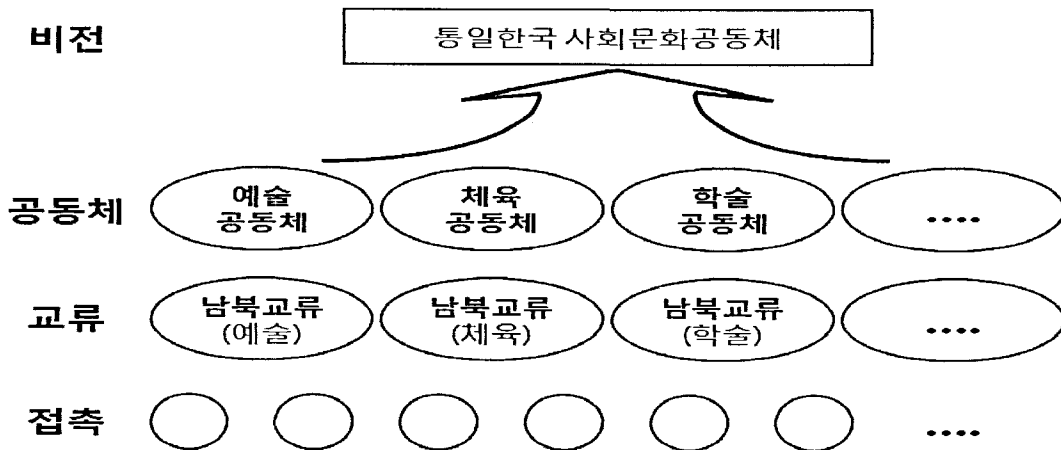
- 남북한의 관계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유동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문화교류는 북한의 연속되는 도발로 인해 전면으로 중단되었고, 이전정부에 추진되면 지속사업을 제외하면 신규사업은 전무하였음. 그러다 2011년 하반기 정부는 다시 비정치, 비군사 분야교류의 확대를 시도하여 북한과의 사회문화 교류를 재개하고 있음. (박영정 외 2012).
  
- 최대석 (2006)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침체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함. 사회문화 교류는 1) 남북한의 체제경쟁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고, 따라서 문화교류는 2) 기본적인 체제유지나 긴장완화의 수단으로 제기됨. 인적교류는 3) 북한의 소극적 자세로 활성화되지 못함.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 교류는 진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① 교류행사는 일회성을 지니고 “행사를 위한 행사”로 추진되었고, ② 교류에 있어서 저변확대나 다양화가 부족하였음. 또 교류가 ③ 대중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단지 남한의 사회발전에 대해 과시용에 불과하였음. 마지막으로 ④ 오만한 태도로 북한사회문화예술에 대해 폄하하는 언론보도 자세는 교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됨. 이러한 내용은 추후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실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박영정 외(2012)는 위의 문제점 외에도 남북한 교류 사업성과의 축적이거나 국민적 확산이 미비했음을 지적함. 단편적, 개별적, 일회적 사업이 추진되어, 제도화가 미비하고 결국 질적 성장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임. 또 하나의 지적은 통일부를 유일한 남북한 교류의 정책부처로 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대북사업 및 통일 정책마련이 부재한 것도 현실적인 문제로 꼽고 있음.
  
- 이상 기존의 선행연구는 기본적인 정치적 상황에 존속되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행과정에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 1) 교류행사는 단편적, 일회적, 개별적, 행사를 위한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짐. 2)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저변확대나 다양화가 부족함. 3) 교류 시 남북한의 동등한 관계

가 형성되지 못함. 남한의 사회문화가 북한에 소개되는 방향으로 전개됨. 또한 언론보도에서는 남한의 우월성이 과시되고 북한의 문화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음. 4)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시행주체는 국제기구, 남북한 정부 뿐 아니라 민간단체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함. 또한 담당 정책부처로 통일부가 중심을 이루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V. 남북 사회문화 교류 추진 전략

### 1. 사회문화 교류의 비전 : 통일 한국 사회문화 공동체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를 공동으로 재창조 하는 것을 지향함.
  - 남북한 주민들이 한 민족의식을 갖고 공통의 목표를 추구.
  -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와 더불어 사회문화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진정한 통일과 통합이 가능.
  
- 독일 사례를 통해 볼 때, 통일 한국의 사회문화공동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먼저 남북한 주민들 간의 만남과 접촉을 통하여 이질성을 줄여나가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
  - 다음 단계에서는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
  - 이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교류가 추진되면 자연스럽게 사회공동체들이 형성될 것임.
  - 남북 예술공동체, 체육공동체, 학술공동체, 교육공동체 등이 형성되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나갈 것임.
  -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쌓아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통일과 더불어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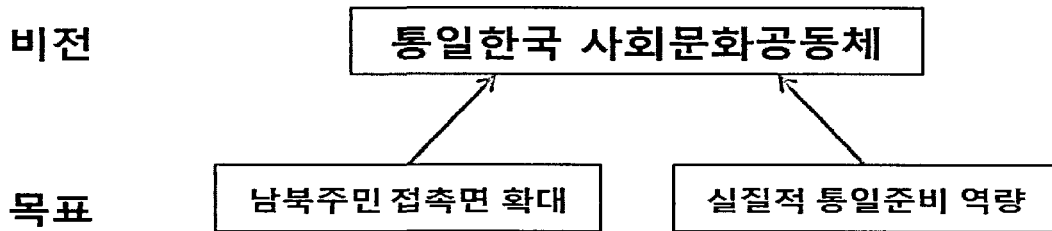


[그림12] 사회문화 교류의 비전



## 2. 사회문화 교류의 목표

-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이라는 장기적 통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사회문화 교류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음.
  - 첫째는, 남북한 주민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것임.
  - 둘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한 주민의 실질적 통일 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그림13] 사회문화 교류의 목표

- 실질적 통일 준비 차원에서 남북 주민의 접촉면 확대.
  - 그동안 우리는 통일이란 목표의 규범적 당위성 때문에 구체적인 통일 준비를 구상하는 점에는 소홀함.
  - 이제 실질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통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접촉을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노력이 중요.
  - 독일의 경우, 통일 전 상호교류를 추진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노력들이 통일 후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 있음.
- 실질적 통일 준비 역량 강화
  -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역량이 매우 중요.
  - 다양한 생활세계(이질성 포함)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역량',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되는 '사회역량',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신뢰와 관용과 배려의 정신을 갖게 하는 '시민역량' 등을 쌓는 것은 이

질적인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즉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

- 따라서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그러할 때 하드파워로 흡수하는 비대칭형 통일이 아니라, 소프트파워로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통일이 가능하게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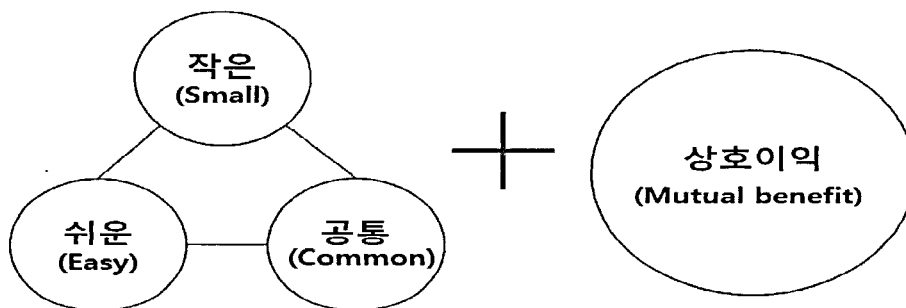
### 3. 사회문화 교류 추진 원칙

○ 1990년 2월 11일 통일부와 문화부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문화교류 5원칙을 제시

- 분단이전 민족 전통문화 우선 교류
- 남북 상호간 승부 및 경쟁적 분야의 교류 배제
-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형 훼손한 표현방식 지양
- 쉽고 작은 분야에서부터 시작
- 공동 실행 위해 지속적 노력

○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과 더불어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그리고 독일 등 외국사례 분석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위하여 크게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14] 사회문화 교류의 원칙

○ 첫째, 작은 통일 원칙에 따라 작은(small)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는 것임.

- 국제회의, 학술대회 등에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
  - 특히, 국제기구 또는 제3국이 주최하는 회의에 남과 북, 제3국의 시민들이 만나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안임.
  - 독일의 경우에도 ‘작은 걸음 정책’을 추진하여 한 발 한 발 교류를 추진하여 나갔고, 나중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확대하여 나간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쉽게(easy)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임.
- 정치적 교류 같은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스포츠 교류, 문화교류, 역사 유적지 방문 등 남과 북이 합의하기 쉬운 분야부터 만남과 교류를 추진하는 것.
  - 특히, 나무 심기 사업, 관광 사업 등 기존에 추진하였던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북한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이 외에도 민족의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한 사업 등 비교적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에서부터 남북 간 교류를 실시하여 남북 주민간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것임.
- 셋째, 남북의 공통성이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것임.
- 한민족 공통의 역사 주제, 독도 등 한반도 영토 관련 이슈 등을 공동의 관심과 주제로 삼고 만남과 토론을 갖는 것.
  - 이질성이 크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영역의 교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이념과 관련된 영역 또는 주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동안 남북 간 많은 교류가 추진되었으나, 이념 및 체제의 문제로 중단되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서로 도움이 되는(mutual benefit) 사업 또는 영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남북 주민간의 접촉과 만남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임.

- 동서독에서도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높은 교류실적을 거두었음.
- 서독의 경우,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민족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였고, 동독의 경우,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류를 추진하였고,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아 다방면의 교류가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4. 사회문화 교류 영역

- 사회문화 분야는 주민의 삶 전체가 관련된 것으로 교류 범위가 매우 다양함.
  - 독일의 경우에도,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교육, 보건, 출판, 보도, 지자체, 대학, 종교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음.
- 남북의 경우에도, 모든 분야에서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나, '쉽고 작은 분야부터 시작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기존에 합의하고 추진하였던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 특별히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다섯 가지 영역, 즉,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분야를 교류 영역으로 명시하고 있음.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 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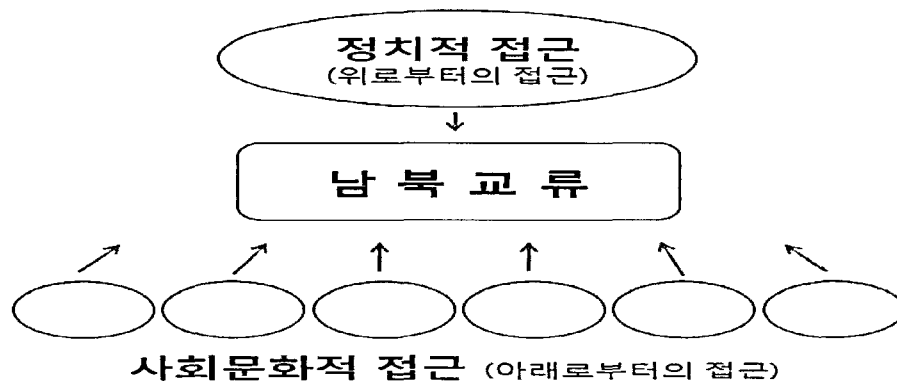
- 특히,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의 교류는 북한의 거부감이 적고,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교류의 대상 영역이 될 수 있음.

## 5. 사회문화 교류 추진 전략

- 사회문화 교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
  - 실효성 있는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여기서는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가. 아래로부터의 접근

-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부터 교류를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 훨씬 쉬울 것으로 예상됨.
  - 남북한 주민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야(문화, 예술, 스포츠) 및 방법(역사 유적 탐방, 민생지원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접촉과 교류를 시작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15] 남북교류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 또한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큰 통일을 지향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한 관점에서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어려운 것으로, 같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다른 것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현실성 있고 실효성도 높은 교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나. 남북의 비대칭성 고려

○ 현재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임.

- 지난 60~70년대 산업화 이후 남한의 국력은 급격히 신장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됨.
- 남북 격차가 심화되면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남한이 통일 주도권을 확보하였고,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화된 북한은 수세적이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형국.

비교 항목	남한	북한	격차
인구	5천만	2천5백만	2배
1인당 GDP	23,848달러	854달러	28배
수출액	5,596억 달러	약 30억 달러	186배
국제관계	global standard	냉전 구도 유지	
외교관계	개방	폐쇄 및 고립	

\* 2013년 기준

<표14> 남한과 북한 비교

○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한이 수용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 현재의 남북 관계는 통일 전 동서독 관계와 유사한데, 통일 전 서독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동독은 체제의 위협을 느끼며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교류 정책을 추진하였음.
- 북한 역시 동독과 마찬가지로 교류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북한이 동의하는 분야 또는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 교류에 따르는 부대 경비를 남한이 감수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부의 물밑 지원도 중요.

## 다. 교류 주체의 다양화

○ 남북 주민간의 접촉면이 가급적 많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류 주체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남북 교류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 왔음.

- 민간의 참여가 있었으나 정부의 입장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 추진됨.
- 남북 교류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

○ 특별히 남한 내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민주화와 더불어 남한 내 시민사회 역량이 꾸준히 제고되고 있음.
- 이러한 시민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류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 있어서 초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하여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에도, 민간이 교류를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 분담을 하여 많은 교류를 성사시킨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민관협력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막혀 있는 남북 간 교류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한민족의 역할도 중요.

- 해외 동포는 비교적 자유롭게 남북한을 접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남북의 대립을 매개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들의 역할을 제고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과 접촉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라. 국제 사회의 협조 및 역할 강조

○ 통일 문제 해결에서 주변 강국의 도움이 중요한 것과 같이 남북 교류에서도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

- 남북의 통일과 평화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의 이해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
- 특히 남북 간 직접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국제사회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고, 남북의 대립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남북 사회문화 교류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변국 및 국제사회(국제기구, INGO 포함)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

○ 국제사회가 매개하는 남북 교류는 남북교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청

- 즉, 남북 교류를 직접적인 교류로만 이해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간접교류를 포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남북 직접 교류가 장애물에 의해 좌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접교류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남북의 정치-지정학적인 지형으로 인해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국의 중재로 남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만남과 교류를 가지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마. 단계별 추진

- 남북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음.
  - 남북교류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과 접촉 단계에 이어 교류를 추진하고 활성화하는 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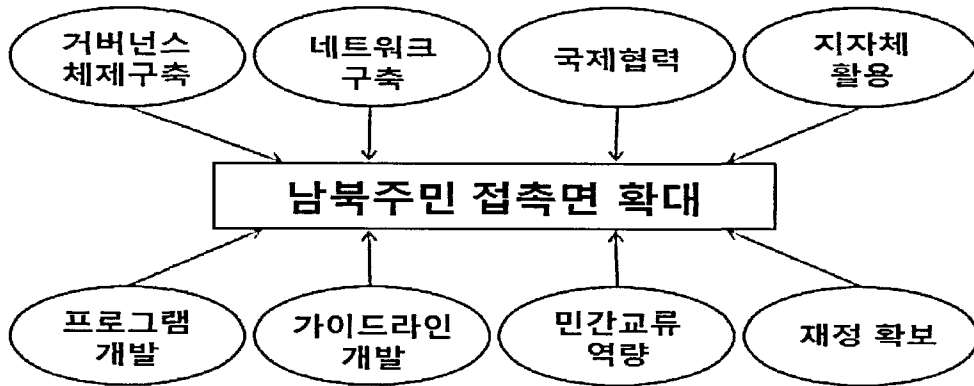
구분	준비단계	만남과 접촉 단계	교류 단계
목표	·남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 증대 ·교류협력분위기 성숙	·남북 주민 접촉면 확대 ·신뢰 구축	·상호이해 증진 ·공동체의식 함양
주안점	·남한 국민 대상 통일 체험 확대 ·남한 국민 북한 방문 확대	·기존사업, 쉬운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은 교류사업 중심 추진	·분야별 교류 추진 ·교류의 정례화·제도화 ·교류대상 및 교류분야 확대
교류의 주체	·정부 주체 ·참여 주체 확대(민간, 해외 한민족 포함) ·지자체 교류역량 강화	·정부와 민간 공동 주체 ·지자체의 역할 강화	·민간, 지자체 주도 ·정부 지원
주요 사업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적극 활용 ·한민족 문화 행사 ·해외에서 문화예술, 체육, 학술, 교육, 종교 분야 교류 추진 ·북한 관광 사업 재추진	·해외에서 문화예술, 체육, 학술, 교육, 종교 분야 교류 추진 ·나무심기 사업 ·예술단 교환 방문 ·스포츠단 교환 방문 ·남북문화유산 답사 ·역사유적지 방문 ·남북문화유산 공동 발굴 ·지자체 주최 교류행사	·해외에서 문화예술, 체육, 학술, 교육, 종교 분야 교류 추진 ·사회단체별 직접 교류 ·프로그램별 직접 교류 ·정기교류 ·지자체/대학 자매결연 ·인적교류 확대 ·국제대회 공동 개최 ·Diaspora Korea 한류 문화제 개최

<표15> 단계별 교류협력 방안(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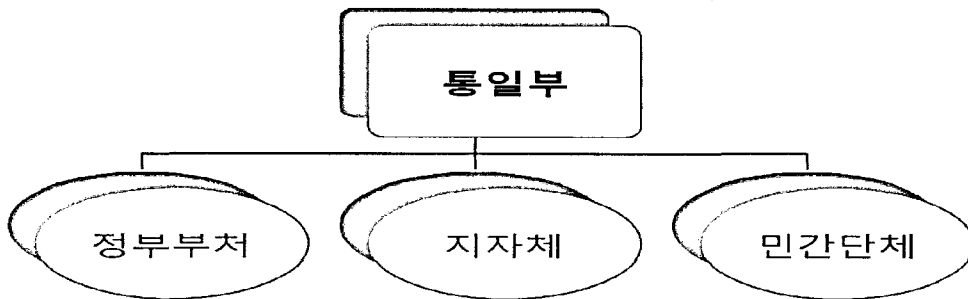
## 6. 사회문화 교류 추진 과제

-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여야 과제를 8가지로 제시하고자 함.



[그림16] 사회문화 교류 추진 과제

-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버넌스 체제는 크게 남한 내에서 구축하는 기구와 남북 간의 협의 기구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 또는 지정이 필요.
  - 통일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그림17] 사회문화 교류 거버넌스 체제

-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를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고, <드레스덴 구상>에서 대통

령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음.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 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 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 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 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 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한다.

-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음.
  - 교류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문화 교류를 논의하고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의 협의기구인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중요.
  
- 남북 사회문화 교류 경험에 대한 아카이빙 구축이 필요함.
  -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남북교류 사업의 내용, 진행 과정, 진행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축적하여 향후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함.
  
- 국제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남북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교류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음.
  - 남북한 및 국제기구 그리고 INGO가 협력하여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추진.
  - 사회문화 교류에서 해외 동포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한민족통일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 지자체의 교류역량을 강화하고,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지자체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고, 교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한 지자체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해 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들이 교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의 교류 역량을 강화하여 교류협력의 주체가 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 도시” 또는 “남북협력 도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 \* 교육부의 경우, 기초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여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음.

○ 사회문화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교육, 보건 등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행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사회문화 교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교류의 준비, 시작, 과정, 결과 등 프로세스별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여 제시할 때 방북 접촉자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지침이 없는 것으로 인해 발행하는 혼란을 예방.
-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방북 접촉자들의 방북교육을 철저히 하고, 방북 접촉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향후 방북교육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
- 가이드라인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류당사자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도 필요.
-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내용, 진행과정, 진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종합정보를 구축하는 작업, 즉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도 중요.

○ 민간의 교류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중요.

- 그동안 교류에서 큰 역할을 해 왔던 민간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교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전문 인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탈북민을 재교육하여 남북 사회교류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

- 사회문화 교류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사업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감안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체, 종교단체)의 후원을 통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 방안.

## VI.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프로그램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구체적인 방안을 교육 및 학술, 문화예술, 보건, 스포츠 등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분야가 통합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음. 그리고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 짐. 다음 방안에서 문화와 예술, 교육과 보건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통일부는 다음과 같은 태도와 역할,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임.
  - 가.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에서 비록 북한보다 남한이 물질적 비용을 담당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사회교류를 임하도록 함. 북한은 실리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의 유무를 따져 사회문화 교류의 참여여부를 판단할 것임. 남한이 경제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통일을 위한 투자라 여기고 북한이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나.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가 국제정세, 정치이념대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함. 북한과의 교류사업을 중단 없이 끌어갈 수 있는 북한 협상가와 사회문화 교류의 전문인력풀을 마련해 놓고, 적극적인 협상에 임함.
  - 다. 한류의 영향이 북한에도 미치고 있음을 탈북자를 통해 확인한바 있음. 북한의 문화유입이 한국사회의 변화, 정치이념적인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에 맞지 않음. 북한이 오히려 한류영향으로 정치이념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진지하게 우려할 것이라 보는바, 남한은 넓은 포용의 자세로 북한의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유입 및 접촉기회를 허용하여 교류를 활성화 함.
  - 라.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민간과의 협력에 임해야 함. 현 시점에서 통일부는 유일하게 북한과의 대화창구 기능을 하는 기관이긴 하나, 사회문화 교류 사업에는 다른 기관의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함. 그러므로 통일부는 남북

한 사회문화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되,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 각각 영역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계부처나 민간단체를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신뢰 있게 협력해야 함.

마. 특히 통일부는 교류사업의 중추역할을 하지만, 주최, 주관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각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특히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는 북한과 남한, 그리고 중국 등 제3국 지자체 기관의 협력을 통해 실행될 가능성도 있음. 지자체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통일부는 지속적으로 교류사업을 모니터링하거나 컨설팅 하여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허브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

바. 또한 통일부는 원활한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수 있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가 유동적이고 이에 교류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남북 간의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협력이 필요함.

사.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대상은 폭넓을 수 있지만, 미래 통일주역으로 전쟁세대가 아닌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사업은 통일과업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함. 따라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사업은 청소년교류에 중점을 두고 실행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가정 내의 어머니로서, 남북한 여성에 초점을 두고 교류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있음.

아. 남북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함. 이 센터는 사회문화 교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할 수 있는 허브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 혹은 현재 연천에 있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가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또한 평화공원의 조성을 통해 그 장소를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활용 가능함. 남북문화센터의 건립 안을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함.

## [남북문화센터 건립 : 비무장 지대 활용 방안]

### ▶ 필요성

가. 장기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심기관 필요

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서의 장이 필요

### ▶ 목적

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데 중추적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 담당

나. 기초연구, 교육 및 학술, 문화예술, 보건, 스포츠, 체육, 과학 등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함.

다. 비무장 지대의 생태계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희귀식물 및 동물채집을 통해 기초연구 조사를 실시하는 공동연구센터 역할 기능을 할 수 있음.

### ▶ 사업추진내용

○ 대상: 남북한 사람들 외 다양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함

○ 장소: 비무장 지대

○ 인력과 운영 주체는 남북한이 가급적 동일한 규모로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함. 운영주체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함.

○ 남북한 문화센터 내에는 공동박물관, 공동전시관, 공동미술관, 공동도서관, 공동음악당, 공동민속문화관 등 설치 운영이 가능함. 각각의 세부운영 내용은 자유롭게 운영주체인 남북한이 공동으로 기획, 시행 할 수 있도록 함. 세부운영프로그램은 교육, 예술, 학술, 과학 등 다양한 주제로 기획운영 가능함.

○ 사업 내용 중 공동 도서관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1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예시)

1. 사람도서관 'LIVING LIBRARY':

사람이 책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

2. 남북한 이야기 소모임: 8명 안팎의 남북한 사람, 이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삶에 대해 나누며,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함.

○ 비무장 지대 생태계, 환경과 관련한 기초공동연구를 위한 회의장소로 적합하게 활용 가능함.

### ▶ 기대효과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전문성 확보, 발전 가능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한 기반체계 구축 가능

- 구체적으로 통일부가 실행할 수 있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프로그램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1. 남북한 공동 하천, 산림 관리

### ▶ 필요성

- 한반도의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 보존은 미래통일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
- 남북한이 공동으로 하천과 산림 등을 관리 보존하여 한반도 주민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환경 조성, 한반도 동질적 공동체 의식 강화
- 하천 및 산림 오염 및 파손에 대한 빠른 대응, 자연재해의 피해 사전 예방
- 공동 관리를 통해서 자연재해의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가능

### ▶ 추진방법

#### 가. 대상과 인력

- 인력: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 남북한 일반주민, 초중고 대학생(특정학교 한두 곳을 선정할 수도 있음.)
  - 남북한 및 재외한인출신 생태 전문 인력, 하천 및 산림 등 관련 지질환경탐사 활동가 및 전문가

#### 나. 절차 및 방법

- 공동실태조사 -> 관리시스템 구축 -> 관리운영 실행 -> 메뉴얼화 -> 지속적인 모니터링



- 생태환경조사는 교류지역을 거점으로 분석, 환경변화는 추적조사로 가능
- 생태환경 탐사, 실태조사 내용을 국내 혹은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공유
- 관리시스템 구축에서는 예산편성, 남북한 연결망 확보, 관리체계에 대한 남북한의 협의, 구체적인 역할 확정
- 공동전문 인력 참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문적 관리방안을 모색, 개발 가능
- 남북한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 전개시켜, 하천 및 삼림 보호, 환경보존의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구상, 발전가능.

▶ 추진내용

- 비무장지대의 지질 및 생태계 기초조사: 하천 및 삼림의 규모 및 실태 파악
- 비무장지대 외의 지역별 하천 및 삼림의 실태조사 : 지질 및 생태자원 파악 및 개발방안 마련
- 백두산의 지질 및 화산 탐색
- 해양 탐사(독도 해양 탐사 등) : 해양자원 탐색, 효율적인 개발방안 모색
- 생태환경탐사단 조직 (남북한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 내 고장 하천과 삼림, 생태식물 및 자원조사하기
- 농촌봉사활동 (남북한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 남북한 학생들이 서로 교환 왕래하여 농촌, 어촌, 산촌의 지역 방문, 농촌활동 활성화

## ▶ 기대효과

- 하천 및 삼림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한반도 통일 실현의 장이 되는 자연 환경, 생태계, 자원을 보존하여 부강한 민족 공동체 이룩
- 남북한 공동 관리를 통해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 2. 남북 이산가족 2·3세 동반 행사

### ▶ 필요성

- 남북한의 이산가족 2·3세대 자손 참여를 통한 세대 간의 교류를 증진 하여 자신의 한민족 뿌리를 발견
- 전쟁의 아픔과 이산의 슬픔에 대한 경험이 없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통일과업실현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일깨우는 교육효과 증대
- 젊은 세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상화문화이해 증진

### ▶ 사업추진방법

#### 가. 대상과 인력

- 참여자
  -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자
  - 가족의 2,3세 아동 및 청소년
- 청소년 교육관련 전문 인력, 레크레이션 담당자, 심리상담가, 의료진
- 이산가족 행사 staff: 남북한, 재외한인 출신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나. 내용과 추진 방법

○ 사전교육 및 협의사항

- 남북한은 프로그램 목표와 방향, 진행상황, 세부일정, 인력담당자들의 구체적 역할 숙지
- 이산가족 행사 준비로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협의: 북한의 경제적 상황 충분히 고려, 남측의 양보 필요.

○ 이산가족 상봉 시 남북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가안)

- 2,3세대 아동 및 청소년 “뿌리 찾기”프로그램 내용
  - : 이산가족의 상봉을 통해 가계도 그리기
  - : 헤어진 가족사 이야기 듣기
  - : 남북한의 학교생활 이해하기

○ 세부일정 (가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전		가족과 시간보내기2. (가족사 이야기 듣기)	이산가족과 작별인사
오후	이산가족 상봉 - 만남과 소개	남북한 청소년의 만남 - 레크리에이션 - 한 가족 내의 2,3세대 자녀인 남북한 청소년이 짝을 지어 자신의 가족사 소개	
저녁	가족과 시간보내기1. (가계도 그리기)	남북한 학교생활 이해하기	

○ 세부프로그램

- 가족과 시간보내기1, 2
  - : 가계도 그리고, 이산의 배경과 아픔 등 가족사 이야기 나누기
- 남북한 청소년의 만남
  - : 남북한의 학교생활, 일상생활을 나누며 상호 이해함.

-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가족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 협의 필요.

▶ 기대효과

- 세대의 뿌리 계승, 가족사를 이해하여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 문화의 이질성 극복
- 미래 통일주인인 젊은 세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 각인
- 국내외 청소년 교육 및 통일교육 전문 인력 개발 및 양성에 기여

### 3.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행사

▶ 필요성

- 남북한의 공동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기념하여 한민족 동질성 회복
- 광복을 맞이하는 뜻 깊은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남북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이해확대
- 한반도 뿐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 연결되어 있는 국외국가들에게 역사적 사건을 다시 기억시켜 역사 속에서 얻는 교훈을 각인, 세계평화에 기여

▶ 사업추진방법

- 사전협상: 역사에 대한 공동인식, 특히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서 한민족의 동질성 강조하여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행사장소: 기념행사 장소는 남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광복을 이루기 위한 독립운동의 터전인 중국의 상하이를 선택할 수 있음.
- 참여자: 남북한만이 아닌, 중국, 일본, 동남아에 거주하는 한민족들이 모이는 광복기념행사로 진행가능
- 기념행사는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안 되도록 사후 지속 프로그램 방안 마련. 지속적인 상호이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기획 시 기념행사로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편성함.

### ▶ 추진내용

- 학술대회, 영화제, 공연 등 광복 70주년 관련 문화행사 공동개최
  -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가 중 하나인 안중근에 대한 공연, 영화제, 학술대회 개최 가능
- 위안부 문제 관련 피해국인 동남아, 중국, 한국 (남북한)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한민족 청소년의 이야기 모임 및 역사 이해 프로그램 운영
  - 광복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의를 깨닫는 시간 마련
  - 한민족 청소년들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 문화차이와 상호이해의 시간, 광복의 역사적 사건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알고, 상호차이를 이해 (남북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재일, 재중 교포 자녀들 참여)
- 상하이 임시 정부에서 일제침략 관련 공동역사박물관,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공동도서관 건립 및 운영.

### ▶ 기대효과

- 남북한이 공동으로 역사인식을 공유하여 한반도 한국문화의 동질성 회복

- 남북한 뿐 아니라 해외 한민족들이 기념행사를 통해 민족의 자긍심 고취
- 역사적 인식 공유를 위한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문화적 이질성 극복

#### 4. 남북 문화유산 공동 발굴

##### ▶ 필요성

- 남북은 공동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이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고 개발한다는 유대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
- 남북 역사학자, 문화학자, 고고학자, 교사, 대학생,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문화유산 발굴에 참여할 때, 자연스럽게 남북 주민간의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

##### ▶ 목적

- 남북이 공동으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발굴하는 작업을 통하여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 확인
-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
- 남북의 문화유산을 공동 발굴하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

## ▶ 사업추진 방법

### 가. 대상과 인력

- 대상 : 학자, 대학생, 교사, 청소년, 재외 한인 및 조선족 학자 및 대학생(자유 모집)
- 인력 : 전문가(역사학, 고고학, 문화학), 교사, 탐사 활동가, 다큐멘터리 제작자, 의료진 등

### 나. 내용

- 남북이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유산 발굴
  - 구석기 및 신석기 시대 유적 공동 발굴
  -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 시대 문화유산 공동 발굴
- 남북의 무형문화재 공동 발굴
  -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무형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목록화 및 보존화 작업 시행
- 사례
  -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공동 발굴
  - 개성의 고려 유적 발굴
  - 만주지역의 고구려 유적 발굴
- 남북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유적 발굴을 기초로 남북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공동 기초연구 및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남북의 동질성 확인
  - 대학생과 교사들도 적극 참여하여 다음 세대에게도 남북 공동의 문화유산을 전수

## ▶ 기대효과

- 통일 한반도에 대한 애국심을 증진하고 공동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목표를 공유
- 남북한 문화유산을 공동 개발할 경우 민족의 동질성과 유대감을 확인
- 민족문화유산을 복원하여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 전환 계기 마련

## 5. 금강산, 개성, 백두산 관광

### ▶ 필요성

- 금강산 관광은 남한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하여 남북 주민간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남북 교류 측면에서도 기여한 바가 컸다고 할 수 있음.
- 남북 주민간의 접촉면 확대를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을 포함하여 남북 관광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
- 북한 역시 관광 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 목적

- 금강산, 개성, 백두산 관광을 통하여 남북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동질성을 체감

- 관광을 통하여 남북 주민간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교류협력 분위기를 확산

## ▶ 추진방법

### 가. 대상과 인력

- 대상 : 남측(일반 성인, 초중고대학생, 교사), 재외 한인, 제3국의 외국인
- 인력 : 관광 사업 추진 민간 인력, 일반 성인, 초중고대학생, 교사, 재외 한인 동포, 외국인 등

### 나. 내용

- 금강산 관광 :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
- 백두산 관광
  -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중국을 통하여 오르지 않고, 북한을 통하여 백두산을 관광
  - 백두산 주변을 탐방하는 프로그램 개설
- 개성 관광
  - 개성의 문화유산을 관광
  -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 및 프로그램 개설

## ▶ 기대효과

- 북한의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관광하며 남북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의 동질성을 체감
- 북한에 남아 있는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직접 현장 체험하며 통일 한반도에 대한 애국심을 증진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체감

## 6. 모자보건 및 여성교류

### ▶ 필요성

- 현재 UNICEF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 모자보건에 대한 사업의 한계성과 더불어 심각한 북한 보건의료 실태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성 필요
- 북한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남한의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북한 경제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의 여성과 남한 여성 기업인들의 교류를 통해 경제문화의 이질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 추진내용

- 참가대상: 26세 이상의 북한의 여성 및 경제적인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북한 여성과 남한의 여성 중소기업인
- 사업주체: 남북한 지자체의 교류 예) 안산시와 라선시

- 현재 북한여성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남한의 여성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추진하도록 함. 예) 남한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귀농한 젊은 여성과 서로의 농촌에 사정에 대한 실태조사
- 드레스덴 선언에서 ‘모자보건 1000 패키지’는 5.24조치와 관련 없이 실시되는 것으로, 교류를 통해서 가임여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이루어짐.

▶ 기대효과

- 모자보건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북한의 가임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남한의 저 출산으로 인한 한반도의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교류를 통해 북한 경제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시장경제주의에 대해 익히며,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갈 것으로 기대함.

7. 동북아페스티벌 - 동아시아해 크루즈

▶ 필요성

- 한반도와 그 주변국(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대만 등)의 사회·문화·정치·경제·역사적인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 대중들이 많이 참여하며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함.
- 대륙에는 국경(border)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해양을 이용한 국제적인 교류가 필요함.

## ▶ 추진내용

- 주최: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대만의 지자체, 해운회사 및 기타 문화행사 단체
- 통일부, 외교부 등의 후원으로 '동아시아해 크루즈'가 각 나라의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함.
- 동아시아해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몽골을 둘러싸고 있는 해양을 지칭함.
- 대중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화공연 등을 기획하도록 함. 예) 크루즈 내에서 동북아 영화축제를 개최함. 영화제를 위해서 각 나라의 감독들이 교류하도록 함.

## ▶ 기대효과

- 지중해처럼, 한반도와 그 주변국들을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해를 통해서 동북아시아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음.
- 각 도시의 지자체는 각 지방의 사회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동북아의 평화를 모색함으로써 남북한이 교류와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음.

## 8. 한반도 공동 수호단

### ▶ 필요성

-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많은 침략을 받았음. 이

에 나라의 위기마다 목숨을 바친 애국 열사 및 충무공 등의 영웅이  
시대마다 존재하였음.

- 남북한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한반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공동 발의 및 행동
- 남북한 주민들의 공동 협력을 통해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위상과 일본 및 중국의 역사 왜곡을 알리며 한반도 통일 의지를 제고하고 전달함.

## ▶ 추진내용

### 가. 대상과 인력

- 대상 : 초중고대학생, 청소년, 해외 한인 청소년, 일반주민, 학자

### 나. 내용과 추진 방법

- 내용 : 독도지킴이 운동, 위안부알리기, 충무공 이순신 해상 순례,
- 장소 : 남북한 지역, 일본, 중국, 러시아
  - 북한 청소년들은 원산(또는 나진항, 남포항)에서 먼저 배를 타고 속초(여수, 목포 등)에 정박한 후 남한 청소년들을 승선시킴.
  - 승선한 남북한 청소년들은 의제에 대해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한반도 미래를 위한 공동의 목표, 방안을 협의함.
  - 충무공 이순신 해상 순례는 격전지를 향해하며 애국심과 외세에 굴하지 않고 대처한 한민족의 얼과 이충무공의 정신을 상기함.
  - 한반도 이슈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백두대간 자전거 순례를 통한 캠페인 전개

## ▶ 기대효과

- 남북한 당국 및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대내외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교류를 통해 공감하고 화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대내적으로 남북한 청소년의 역사 왜곡 청산, 독도 지키미, 구국 위인을 기리는 주제로 인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
- 남북 갈등 구조가 아닌 외부 세력에 대한 공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공동의 경험으로 인해 민족 공동체로서의 유대감 형성

## 9. 남북한 공동 국제대회 참여

### ▶ 필요성

- 남북한은 문화절대적인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함. 이는 체제 대립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임. 이러한 문화절대적인 관점에서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호간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교류가 필요함.
- 남북한이 국제적인 경기 및 기능올림픽 등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문화적인 접점을 만들어야 함. 이는 향후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들에게 통일을 홍보하는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음.
- 스포츠 및 기술 교류 등을 계기로 남북 간의 경색된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음. 비정기적인 사회문화적인 교류에서 정기적 교류로 발전시킴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

## ▶ 추진내용

- 국제 대회 참가 협의체 구성
- 대회 참가와 관련한 재정·지출 계획 수립
  - 사업 지원 방식 설정 (민간 지원, 통일부 등 공적 지원, 기부 등의 개인 지원의 세부 항목별로 지원 방식을 설정)
  - 대회 참가와 관련한 일체 지원은 남한 측에서 부담 (지원비용 등의 손실비용은 이후 콘텐츠 개발, 개최 이후의 직간접적인 파급효과 등으로 복구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됨.)
  -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방안 마련
- 구체적 종목 선정
- 참여방식 선정 (공동참가 혹은 단일팀 구성)
  - 단일팀 참여 방식을 제안 (공동참가의 경우 분단국이라는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단일팀 구성이 공동참가 방식보다 홍보에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 훈련 장소 및 선수 선발 등의 세부 사항 결정

## ▶ 기대효과

- 스포츠 및 기능 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원활한 관계 형성에 이바지함. 특히, 국제 대회의 다양한 분야 및 계층들이 교류하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할 때 한반도 통일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임.
- 한반도의 평화적 이미지를 콘텐츠로 활용하여 사업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효과 발생

- 분단국 리스크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국가브랜드는 곧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기여할 수 있음.

## 10. 통일문화주간

### ▶ 필요성

-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 논의는 정치적·안보적인 관점에서 악순환 되어 왔음. 통일의 이미지가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적이며 생활공동체로서의 개념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핵’, ‘이데올로기’, ‘레드 콤플렉스’, ‘좌익 또는 우익’을 편 가르기 하는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되었음.
- 통일은 이제 정치적인 논리를 벗어나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생각을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로서 기능해야 함.
- 이를 위해 현 남북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통일 공감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남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감성적인 접근, 한민족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이며 학문적인 장이 마련되어야 함.

### ▶ 추진내용

- 대상 : 일반 남한 주민, 남북한 주민, 개성 공단 노동자 및 시민



○ 장소 : 남한, 북한, 동아시아, 해외 동포 사회, 개성

○ 방법 :

- 통일문화주간은 남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운동의 확산을 위해 해외 한인들이 거주하는 사회를 환기할 수 있는 릴레이 통일음악회 형식도 가능함.
- 통일문화주간시 다양한 예술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통일을 콘텐츠로 하는 체험, 전시, 공연, 연극 및 영화제, 학술대회, 청소년 통일 콘텐츠 선발, 남북한 출신 청소년 합동 발표회 등으로 구성
- 통일문화주간을 시행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국한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시도군 등의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통일무브먼트가 될 수 있도록 기획
- 통일문화주간시 상징적인 참여 및 공간의 의미로 재외한인 참여 및 개성지역, 제3세계 등에서 다채롭게 실시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공존성을 상징화하고 북한 문화에 대한 상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 기대효과

- 한인 사회를 거점으로 릴레이 통일 음악회를 하는 의미는 한인들의 자긍심 제고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통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친한 세력 조성
- 북한의 한류문화를 감안할 때 남북한 분단이전 음악과 북한 주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로 구성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인 역량을 제고

## <참 고 문 헌>

- 김창환·유시은·김운영·이숙현. 2013. “남북 청소년 교류 추진 방향 연구”. 통일부.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 통일연구원. 2014.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제1차 KINU, 통일포럼(2014.4.30)”.
- 길은배 외. 2000.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 길은배 외. 2001.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 길은배 외. 2002.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 길은배 외. 2004.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확대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길은배. “인도주의적 지원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동학”.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1호, 449-476.
- 김누리 외. 2006a. “머릿속의 장벽 - 통일 이후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 한울 아카데미.
- 김우리 외. 2006b. “변화를 통합 접근 - 통일 주역이 돌아본 독일 통일 15년”. 한울 아카데미.
- 김영운. 1998. “통일전 서독의 대동독 정책”. FES-Information-Series, 1998-04.
- 김영운 외. 2010.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통일부.
- 김창환. 2003. “통일 전 동·서독 학교 통일교육의 이념과 실상”. 한독교육학연구. 제8권 제1호.
- 김창환 외. 1999.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교육 적응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창환 외. 2001. “남북한 교육체계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창환 외. 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통일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 목표”.
- 리하르트 바이츠제커(지음), 택재택(옮김). 2012. “우리는 이렇게 통일했다”. 창비.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07. “남북 사회문화 교류 중장기 로드맵 설정 및 추진 전략연구”. 통일부.
- 박성희. 1999.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5권 1호, 289-312.
- 박성희 외. 2002. “남북한 청소년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손기웅. 2005.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통일연구원.
- 신용철. 1990.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문제연구, 153-183.
- 양영식·김경웅. 1991. “독일통일을 전후한 문화교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의 시사점”. 문화정책논총, 제3집, 11-41.
- 이성원. 2014. 그래도 우린 다시 만나야 한다. 꿈결.
- 이우영 외. 2001.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 이우영. 2006. “사회문화 분야의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2013. “세상을 바꾸는 약속 - 책임 있는 변화”.
- 정용길. 2009. “독일 1990년 10월 3일 -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동국대학교출판부.
- 최의철. 2000.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 통일원. 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 통일부. 2013. “2013년 통일부 업무 보고”.
- Glaab, M.(1996). Deutschland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 Weidenfeld, K.-R. Korte(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178-188.
- Grundlagen des Marxismus-Leninismus. Lehrbuch, Berlin, 1960.
- Kuppe, J.(1996). Deutschlandpolitik der DDR, W. Weidenfeld, K.-R. Korte(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190-204.
- Seliger, B.(2009). 독일 통일 20년 - 정치·사회·경제적 결산. 한국수출입은행·국가안보전략연구소.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 Statistisches Bundesamt(2010). *20 Jahre Deutsche Einheit*.
- Weidenfeld, W., Korte, K.-R.(Hrsg.)(1996).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1996.

